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매그넘 인 파리

**COLUMN**

춤 비평의 자리  
거리의 춤, 삶의 춤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갤러리 하이



매그넘 인 파리

Eiffel tower 100th anniversary, Paris, France, 1989 © Elliott Erwitt/Magnum Photos

2021년 문화예술아카데미

# BSCC 온라인 클래스



다양한 강좌를 비대면으로 만나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 모든 강좌는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강좌명	일정	수강료
실시간 라이브 강좌 ZOOM	시를 읽은 그대에게	5. 21. ~ 6. 11. (금), 4회 14:00 ~ 15:30	20,000원
	아티스틱 미술, 판타스틱 라이프	5. 25. ~ 6. 29. (화), 6회 19:30 ~ 21:00	30,000원
	일상의 기록, 감성사진	5. 27. ~ 6. 17. (목), 4회 14:00 ~ 15:30	20,000원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	6. 3. ~ 6. 24. (목), 4회 19:30 ~ 20:30	20,000원
	오늘의 춤, 내일의 춤	6. 3. ~ 6. 17. (목), 3회 10:00 ~ 11:30	-

**수강접수** 접수기간 4. 30. (금) ~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저널링음악이벤트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집박 김수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 프로그램


### 1부 현악취타 풍류

취타  
김군악 (절화)  
길타령 (일승월항지곡)  
별우조 타령 (금전악)  
군악

### 2부 자진한잎

경풍년 우조 두거  
경풍년 변조 두거  
염양춘 계면 두거  
수룡음 농  
수룡음 계락  
수룡음 편I, II

2021. 6. 10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10,000원 · S석(2층) 5,000원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607-6000



# 위로의 메시지



## PROGRAM

레너드 번스타인 / 치체스터 시  
Leonard Bernstein / Chichester Psalms

윌리엄 월튼 / 벨사살의 향연  
William Walton / Belshazzar's Feast

지휘 **이기선** (예술감독)  
Ki-sun Lee, Conductor

협연 **고성현** (바리톤)  
Sung-hyoun Ko, Bariton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2021. **6.24**(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607-6000  
할인 50% 등록장애인, 다자녀가구, 임산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학생본인(초/중/고/대) 3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예술인 패스소지자

제79회 을숙도명품콘서트

# 전쟁과 사랑 *in* 오페라 O p e r a



소프라노 | 강수진



소프라노 | 김유진



소프라노 | 이지은



소프라노 | 장은녕



메조소프라노 | 박소연



테너 | 김지호



테너 | 양승엽



테너 | 임성규



바리톤 | 안세범



바리톤 | 유용준



바리톤 | 윤동준



베이스 | 김정대



베이스 | 박상진



피아노 | 김경미



피아노 | 김주리



연출 | 이효석

2021.6.18.금 오후 7시 30분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021 명품콘서트 시리즈

총감독 | 홍희철

I 마음을 담아 봄 콘서트(5/19)

III 콘체르토(10/16)

V 송년음악회(12/11)

II 전쟁과 사랑 in 오페라(6/18)

IV 국향만리(11/19)



Pick!

세계 최고의 베르디 오페라 공연실황을  
부산문화회관에서 대형스크린으로!



베르디 완전정복

시네 BSCC  
CINE OPERA  
CHOICE 2021  
오페라  
초이스  
2021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토요일 오후 3시 | 전석 2만원

주최  부산문화회관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 또는 고객센터 (051-607-6000, ARS 1번)

시네 오페라 초이스 패키지 구매혜택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2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05.01.<sup>SAT</sup>

라  
트라비아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06.12.<sup>SAT</sup>

리콜레토

브레겐츠  
오페라 페스티벌

09.04.<sup>SAT</sup>

아이다

라 스칼라

12.04.<sup>SAT</sup>

맥베스

베를린국립오페라



# CONTENTS

## 06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June 2021 Vol.354

2021년 6월호 통권 354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1년 5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08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매그넘 인 파리
- 14 **Column**  
춤 비평의 자리  
거리의 춤, 삶의 춤
- 16 **음악과 함께 떠나는 세계 박물관 여행 ⑤**  
베르사유 ①  
예술과 과학을 융성시킨 군주 루이 14세
- 20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아름다운 마당에서 당신에게 건네는 인사  
갤러리 하이
- 22 **Academy Class**  
빛과 시간의 동행-사유와 표현의 세계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 25 **Preview**
- 30 **Issue**  
2021년도 제18회 부산국제연극제
- 32 **Review**
- 36 **Program Guide**
- 50 **New Book**
- 51 **BSCC News**
- 52 **윤주임의 24시**  
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교육전시팀



SUN	MON	TUE	WED
<p><b>6</b></p> <p>2021 제3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b>대 중 챔</b> 부산MBC(760-1121)</p>	<p><b>7</b></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b>매그넘 인 파리</b>                      6월 28일(월)-10월 10일(일)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6:00                      (입장마감 오후 5:00)                      입 장 료 :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3천원,                      어린이 1만원                      문 의 :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070-7779-8990</p>	<p><b>1</b></p> <p>2021 제3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b>대 중 챔</b> 부산MBC(760-1121)</p>	<p><b>2</b></p> <p>2021 제3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b>대 중 챔</b> 부산MBC(760-1121)</p>
<p><b>6</b></p> <p>2021 제3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b>대 중 챔</b> 부산MBC(760-1121)</p>	<p><b>7</b></p>	<p><b>8</b></p> <p>케인앤무브먼트 창작무대 '그렇게 다시' 19:30  <b>대</b> 케인앤무브먼트(02-879-0613)                      한국창작합창21 제15회 정기 작품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xi' 19:30  <b>중</b> 초대/한국창작합창21(010-7600-4514)                      김가영 플루트 독주회 19:30  <b>챔</b> 초대/김가영(010-6398-9528)</p>	<p><b>9</b></p> <p>(사)예술아카데미나빌레라 '8인 8색' 19:00  <b>중</b> 초대/(사)예술아카데미나빌레라                      경성현악합주단 제31회 정기연주회  <b>챔</b> 초대/경성대학교 음악대학</p>
<p><b>13</b></p> <p>제3회 BIDE 코리아댄스 그랑프리 09:00  <b>대</b>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68-7881~2)</p>	<p><b>14</b></p>	<p><b>15</b></p> <p>피아노 앙상블의 신세계 19:30  <b>중</b> 초대/피아세(010-4566-9304)                      벨라무지카 제6회 정기연주회 '오스트리아의 선율' 19:30  <b>챔</b> 초대/벨라무지카(010-5520-8728)</p>	<p><b>16</b></p> <p>부산독일가곡연구회 제5회 '영원한 보헤미안 구스타프' 정기연주회  <b>중</b> 2만원·1만원                      부산독일가곡연구회</p>
<p><b>20</b></p> <p>2021 New 아티스트챌린지 with KNN방송교향악단 17:00  <b>중</b> 초대/KNN방송교향악단(850-9568)</p>	<p><b>21</b></p>	<p><b>22</b></p> <p>트리오 피아체 연주회 19:30  <b>중</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무지카비바 앙상블 제31회 정기연주회 '열정과 낭만사이!' 19:30  <b>챔</b> 전석 2만원/무지카비바 앙상블(010-3600-8397)</p>	<p><b>23</b></p> <p>부산대학교 교수임용기념 독창회 19:30  <b>중</b> 3만원·2만원/부산대학교</p>
<p><b>27</b></p> <p>2021년 부산현대음악앙상블 기획연주회 '6인의 창작 실내악의 밤II' 18:00  <b>챔</b> 무료/부산현대음악앙상블(010-4691-4994)</p>	<p><b>28</b></p>	<p><b>29</b></p> <p>이은옥 바이올린 리사이틀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시리즈III' 19:30  <b>챔</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b>30</b></p> <p>김지윤 피리독주회 '세계의 피리' 19:30  <b>챔</b> 전석 1만원                      문화예술기획 소리순</p>

공연  
 알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2 공쿠르 예선 10:00 (60-1121)	3 2021 제3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대 중 챔 부산MBC(760-1121)	4 2021 제3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대 중 챔 부산MBC(760-1121)	5 2021 제37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대 중 챔 부산MBC(760-1121)
9 라 제5회 정기연주회 나빌러리(010-2543-0920) 정기연주회 19:30 악학부(663-4918)	10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0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19:30 중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1	12 제3회 BIDF 코리아댄스 그랑프리 09:00 대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68-7881~2) 부산문화회관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베르디 완전정복 II '브레겐츠 오페라 페스티벌-리콜레토' 15: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이현욱 피아노 독주회 17:00 챔 전석 2만원/예원엔기회(010-3645-7953)
6 8회 정기연주회 프 말리' 19:30 (010-8455-2383)	17 부산문화회관 기획강좌 '전원경의 아트살롱: 비엔나에서 클림트를 만나다' 11:00 챔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6회 정기연주회 '비제의 교향곡 제1번' 19:30 중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피아니스트 정고은 귀국 독주회 19:30 챔 전석 2만원/정고은 010-7566-1212	19 2021 에일리 콘서트 'Show Tok' 14:00, 19:00 대 13만2천원-12만1천원-9만9천원 (주)WSM(1566-5490)
13 바리톤 이광근 초청 화(1600-1803)	24 부산시립합창단 제182회 정기연주회 '위로의 메시지'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51회 UKO 유스오케스트라 사랑나눔음악회 19:30 중 UKO(988-3087) 제1227회 MBC목요음악회 19:30 [무관중 공연] 챔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25 창단 10주년 후 브라스 콰이어 제9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전석 1만원/후 브라스 콰이어(010-8733-7438) O 트리오 창단연주회 19:30 챔 전석 1만원/박민선(010-5516-8231)	26
30 의 유산' 19:30 (744-5716)	7/1 부산시립극단 제70회 정기공연 '벚꽃동산' 19:30 중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7/2 부산시립극단 제70회 정기공연 '벚꽃동산' 19:30 중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I' 19:30 챔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7/3 부산시립극단 제70회 정기공연 '벚꽃동산' 17:00 중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p><b>부산시민회관 전시실</b></p> <p>제8회 한필서예작가전 6월 7일(월)-6월 13일(일) 제1, 2전시실 전국한필서예작가회 010-7756-5636</p> <p>창립34주년 제21회 부산연목서화회원전 6월 15일(화)-6월 20일(일) 제2전시실 부산연목서화회 이철환 010-7479-3531</p> <p>경도 박태경 개인전 6월 22일(화)-6월 27일(일) 제1, 2전시실 박태경 010-2840-2572</p>		<p>1</p> <p>연극 '올모스트 메인' 20:00 소 5만5천원·4만4천원·3만3천원 극단 소년(0505-1379-1802)</p>	<p>2</p> <p>연극 '올모스트 메인' 16:00 소 5만5천원·4만4천원·3만3천원 극단 소년(0505-1379-1802)</p>
<p>6</p> <p>연극 '올모스트 메인' 13:00, 17:00 소 5만5천원·4만4천원·3만3천원 극단 소년(0505-1379-1802)</p>	<p>7</p>	<p>8</p>	<p>9</p>
<p>13</p>	<p>14</p>	<p>15</p> <p>라이온스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라이온스 가요제 15:30 대 국제라이온스협회355-A부산(642-3606)</p>	<p>16</p>
<p>2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NEW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 비명동산의 초대장' 11:00, 14:00, 16:00 대 6만원·5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21</p>	<p>22</p>	<p>23</p>
<p>27</p>	<p>28</p>	<p>29</p>	<p>30</p> <p>부산시민회관 부산 문화극장 '피노키오' 19:00 소 무료(15세 이상 관람권) (재)부산문화회관 6</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2	3	4	5
연극 '올모스트 메인' 16:00, 20:00 소 5만5천원·4만4천원·3만3천원 극단 소년(0505-1379-1802)	연극 '올모스트 메인' 16:00, 20:00 소 5만5천원·4만4천원·3만3천원 극단 소년(0505-1379-1802)	연극 '올모스트 메인' 20:00 소 5만5천원·4만4천원·3만3천원 극단 소년(0505-1379-1802)	연극 '올모스트 메인' 15:00, 19:00 소 5만5천원·4만4천원·3만3천원 극단 소년(0505-1379-1802)
9	10	11	12
6	17	18	1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NEW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 비명동산의 초대장' 11:00, 14:00, 16:30 대 6만원·5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3	24	25	26
		제71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11:00 대 부산광역시(888-1911)	
0	7/1	7/2	7/3
가 있는 날_배시시 명품 (가, 사전예매 필수) 07-6000			시크릿췌췌 별의 여신 뮤지컬 시즌2 부산 앵콜 11:00, 14:00, 16:30 대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20세기 사진의 신화 매그넘 포토스 39명의 작가가 포착한  
세계 문화 수도 파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매그넘 인 파리

## MAGNUM IN PARIS

### 2021.06.28 - 10.10

오전 10:00 - 오후 6:00(입장 마감 오후 5:00) |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 입장료

성인(20세 이상) 1만5천원,

청소년(14세~19세) 1만 3천 원, 어린이(3세~13세) 1만 원

※ 특별할인(중복할인 불가)

- 36개월 미만(증빙서류 지참 시) 무료

- 특별 50% 할인(본인 1매에 한함, 해당 할인 증빙자료

지참 시에만 적용) ▶ 경로우대 만 65세 이상, 장애인 1~6

급, 국가유공자, 의상자, 국가유공자유족, 의사자유족

#### 입장권 예매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http://www.ticketlink.co.kr)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http://www.bscc.or.kr)

#### 일반 및 단체 관람 문의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070-7779-8990,

[www.magnuminparis.com](http://www.magnuminparis.com)



Arc de Triomphe, Paris, France, 1952 © Robert Capa ©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Magnum Photos



Worker and student demonstration from République to Denfert-Rochereau, Paris, France, 1968 © Bruno Barbey/Magnum Photos

## 천의 얼굴을 가진 도시, 파리

세계 문화 수도라 불리는 파리(Paris)는 프랑스의 수도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자유와 낭만의 상징으로 우리들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다. 세계사에서 혁명의 깃발이 가장 많이 나부낀 도시이면서 국제적인 트렌드를 이끄는 럭셔리 산업과 패션의 본고장이며, 그리고 전 세계 청년 예술가들이 세계 예술사에 획을 긋는 거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예술의 도시이다.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따지기 보다는 스스로 '파리지앵'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곳, 그러나 막상 가보고는 자신이 그렸던 환상과 대비되는 현실로 '파리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도시, 그야말로 파리는 천의 얼굴을 가진 도시이다. 특히 파리는 사진기법 특허로 오늘날 최초의 사진 발명자로 기록된 프랑스의 오페라 무대예술가 루이 자크 망데 다게르가 '탕플대로'라는 첫 번째 사진작품을 남긴 도시로도 기억된다.

(재)부산문화회관과 문화콘텐츠 전문기업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매그넘 인 파리>는 이런 파리

의 다양한 모습을 조망하는 특별한 사진전이다. 특히 로버트 카파, 마크 리부, 엘리엇 어윗 등 20세기 사진의 신화로 불리는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의 소속 작가 39명, 작품 346여 점(작품 224점, 8개의 영상으로 구성된 122점의 사진)을 통해 193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파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볼 수 있다.

## 20세기 사진의 신화, 매그넘 포토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진가그룹인 매그넘 포토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발생한 지 2년만인 1947년 4월, 미국 뉴욕에서 로버트 카파, 데이비드 시무어,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들은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도 포토 저널리즘과 르포르타주 정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진작가들이었다. 전쟁이 남긴 상처 속에서 이들은 사진을 통해 자신들이 마주본 세상을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자본으로 무장한 잡지사 및 통신사들로부터 사진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낸다는 비

전을 서로 공유했다. 이들의 작업은 우리에게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사진을 통해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었다.

### 미술관에서 만나는 파리

이번 전시에서는 출품 작가들의 프로필부터 시대별, 분야별로 프랑스 파리를 보여주는 11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섹션인 '살롱 드 파리(Salon de Paris)'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의 원형이 조성된 1,800년대 나폴레옹 3세 시대의 파리 모습을 당시 고지도와 일러스트, 희귀도서, 앤티가구와 소품을 통해 보여준다. 두 번째 섹션 '매그넘 인 매그넘'에서는 전시 출품작가 39명의 프로필 및 전시 인트로 영상을 통해 관람에 앞서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세 번째 섹션부터가 본격적인 주제가 펼쳐지는 전시로, '파리, 가난과 전쟁으로 몰드다(1932-1944)', '재건의 시대(1945-1959)', '낭만과 혁명의 사이에서(1960-1969)', '파리는 날마다 축제(1970-1989)', '파리의 오늘과 만나다(1990-2019)' 등 연

대기별 주제와 '플라뇌르(Flâneur), 파리의 산책자', '파리지앵의 초상', '파리, 패션의 매혹' 등 파리의 특색을 집약한 키워드를 적절히 반영시켜 1930년 이후 파리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 플라뇌르와 파리지앵

특히 '플라뇌르(Flâneur), 파리의 산책자'에서는 도시 곳곳을 누비며 풍경을 관찰하는 산책자(플라뇌르)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작품을 패션, 혁명, 재즈, 파리의 거리, 유머, 키스 등 8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관람할 수 있다. '파리지앵의 초상'에서는 세계의 지성사와 예술사를 바꾼 위대한 파리지앵의 초상사진을 소개한다. "내가 느끼기에 진짜 파리지앵들은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파리에서 사는 것이 일종의 정착이다(로제 그르니에\_나의 위대한 도시 파리)" 프랑스의 문인이자 언론인이었던 로제 그르니에의 말처럼 프랑스 파리는 파리지앵의 도시이다.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피카소와 달리는 스페인에서, 샤갈은 러시아에서, 쇼팽과 마리

Fitting in the Chanel atelier with Karl Lagerfeld, Paris, France, 2002 © Ferdinando Scianna/Magnum Photos







French bi-Centennial parade on the Champs Elysees designed by Jean Paul Goude, Paris, France, 1989 © René Burri/Magnum Photos

퀴리는 폴란드에서, 모딜리아니는 이탈리아에서 파리로 왔지만 그들은 이제 파리지영으로 기억된다. 이렇듯 국적은 달라도 파리에서 꿈을 펼쳤던 파리지영 24인의 초상화가 전시된다. 한국에서만 선보이는 특별 섹션 ‘엘리엇 어윗 - Paris’에서는 현재 94세의 나이로 매그넘 포토스의 최고령자이자 사진계의 살아있는 거장으로 추앙받는 엘리엇 어윗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파리 거리 곳곳과 파리지영,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동물, 특히 개(dog)의 모습을 촬영한 작품을 통해 유머러스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함과 인간에 대한 작가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 부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이번 전시에서는 파리가 예술가들의 수도였다는 점에서 착안해 한국의 시각 디자이너, 음악가, 공예가, 시인, 조향사, 영화감독 등이 참여한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전시에 담고있다. 전시 슬로건은 카피의 대가 윤준호 시인의 손끝에서

태어났다. 매그넘 포토스 다큐멘터리는 재벌 영화인인 장유록 감독이 촬영을 맡았으며 음악감독으로는 밴드 ‘홀리건’ 출신인 김유석 씨가 함께 했다. 나전칠기 분야의 젊은 예술가 이용선 교수는 파리를 주제로 한 나전칠기 병풍을 선보이며, 배러덴알콜 대표 이원희 조향사가 ‘파리의 아침 산책’, ‘파리의 밤’을 주제로 개발한 2개의 전시 메인 향도 전시를 관람하며 즐길 수 있다. 또한 앞선 전시에서는 만나볼 수 없던 특별함도 더해졌다. 먼저 부산에서 처음 공개되는 스케치 영상이 눈에 띈다. 영화감독 장유록이 파리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모습을 포착한 영상 ‘파리 산책’은 파리 일상, 명소, 사람들을 생생하게 담아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된 유행으로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조금이나마 달래준다. 아울러 전시를 찾는 가족관람객들을 위해 파리의 역사와 관광 명소를 알아볼 수 있는 체험 코너가 신설되었으며 파리의 수많은 랜드마크 중 하나인 ‘사랑해 벽’을 형상화한 포토존이 꾸며져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

전시기간 동안에는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도 열린다. 유엔국제보도사진상, 한국보도사진대상을 수상한 조영호 박사는 매그넘 포토스의 역사와 작가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소개하고,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하고 국립 오르세미술관의 객원 연구원을 역임한 이현 예술사가는 '예술의 수도'로 불린 프랑스 파리가 어떻게 전 세계 예술가들의 성지가 되었는지를 탐구한다. 이어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김흥기 패션큐레이터

는 럭셔리 산업과 패션의 본고장인 파리에서 패션이 어떻게 유통되고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지를 복식사를 토대로 읽어낸다. 마지막으로 소설가이자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함정임 교수는 파리를 사랑한 위대한 문학과 작품을 통해 문화예술의 성소로서 파리를 향유한다. 이처럼 사진과 예술사, 패션, 문학 분야로 구성된 연계강좌들은 매그넘 포토스 작가들의 사진 세계부터 파리의 도시사를 엿보며 보다 풍성한 전시 관람을 도와줄 것이다.

A Dior model wearing a "New Look" long skirt, Paris, France, 1948 © Robert Capa ©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Magnum Photos





# 매그넘

MAGNUM IN PARIS

문득, 파리. 눈앞의 파리



Eiffel tower 100th anniversary, Paris, France, 1989 © Elliott Erwitt/Magnum Photos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2021.06.28 - 10.10

# 인 파 리



# 춤 비평의 자리 거리의 춤, 삶의 춤

이상현 춤 비평가



눈길 돌릴 여유도 없이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 두 명이 춤을 추고 있다. 음악은 소음에 묻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두 사람은 서로 눈길을 주고 받으며 동작을 맞춘다. 이들과처럼 거리에서 춤추며 홍보를 하던 이들을 ‘내레이션 모델(Narration Model)’이라고 불렀다. 내레이션 모델은 음성으로 홍보 대상을 설명하면서 모델 역할까지 하는 이들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박람회, 아파트 모델하우스, 자동차같이 전문적이거나 고가의 상품을 홍보하는 일로 일정한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인데, 거리에서 춤추며 식당이나 유흥업소 개업, 생필품을 홍보하는 이들까지 이

렇게 불렀다. 이들은 내레이션과 춤추는 역할을 나누었는데, 적게는 2명, 많게는 4, 5명이 한조를 이루었다. 이들의 춤은 잘 알려진 대중가요에 맞춘 동작 몇 개가 반복하는 단순한 구성이었다. 낮고 좁은 단 위에서 춤추기 때문에 움직임이 단순하고,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추는 예도 없었다.

특별한 기술 없는 20대 여성이 별다른 조건 없이 쉽게 할 수 있고, 보수도 식당, 편의점에서 일할 때보다 많아 거리에서 이들을 만나는 일은 흔했다. 한때 이들을 관리하는 기획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업체 난립으



로 인건비가 하락하고 홍보 효과가 단기적이라는 약점 때문인지 송풍기 바람에 흔들리는 홍보용 풍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내레이션 모델이 거리에서 춤을 추는 목적은 생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며 춤추는 '예술가'로 불리는 이들의 목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술가의 사례와 내레이션 모델에게 주는 대가를 다르게 여긴다. 춤추는 사람이나 춤의 수준이 달라서라면, 춤꾼과 춤의 등급을 판단할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지표는 없다. 돈으로 따지면 예술가의 출연료가 내레이션 모델의 일당에 비해 적으면 적었지 많지 않다. 그런데도 한쪽은 예술 행위에 대한 정중한 사례이고, 다른 쪽은 일에 대한 보수라고 여긴다. 무대에서 춤추는 행위도 춤꾼 입장에서 보면 일(노동)이다. 이런 노동을 이탈리아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마리오 랏짜라또(Mrurio Lazzarato)는 '비물질 노동'이라 부른다. 비물질 노동은 '서비스, 지식 또는 소통과 같은 비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내레이션 모델의 거리 춤과 춤꾼이 무대에서 추는 춤은 모두 '비물질 노동'이다.

춤 비평의 대상은 '춤 작품'이다. 전문 춤 예술가가 만들고 춤추는 '공연'만을 다룬다. 그렇다면 내레이션 모델의 거리 춤은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 춤추는 목적도 같고, 둘 다 비물질 노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도 하나는 비평의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춤을 삶에서 떼어내 가치를 추상화한 우리 춤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춤이 근대를 지나면서 춤은 삶과 떨어진 채 무대로 올라갔다. 한성준은 당시 조선에 산재한 수많은 무속춤, 의식춤, 민속춤, 정재 중 수십 가지를 정리해 무대화했다. 최승희, 조택원을 시작으로 하는 신무용과 한성준이 재창조한 전통춤은 '만들어진 전통(invention of tradition)'으로 오늘의 춤이 됐다. 세시풍속과 긴밀했던 민속춤이 민중의 생활에서 떨어져 나왔고, 일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삶의 맥락에

서 점점 멀어져 갔다.

서구 모더니즘 미술이 형식적으로 자기 환원의 극한까지 가면서, 삶과 완전히 괴리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팝아트에 열광했다. 지금 한국의 춤과 비평이 처한 상황이 형식주의 미술과 팝아트의 관계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비보이의 춤에 '좋아요'를 누르며 환호한다. 화려한 문예회관 극장의 무대 위에서 춤꾼들의 절박한 현실은 예술에 은폐된다. 무대는 알 수 없는 몸짓이 가득하다. 춤은 원래 어려운 것이라고 자위하면서 고귀한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대중을 탓한다. 자신이 얼마나 현실에서 멀리 있는지 모른다.

이런 역사에서 지금의 춤 비평이 내레이션 모델의 거리 춤에 눈길을 두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춤도 달라졌다. 춤이 더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어차피 무대 춤이든 거리 춤이든 춤으로 먹고사는 것이 목표라면 내레이션 모델의 거리 춤은 절실한 퍼포먼스다. 하지만 무대만이 춤에 예술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이제 춤과 비평은 함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춤 비평은 춤의 비언어적 몸짓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러니 내레이션 모델의 거리 춤의 가치를 짚어내는 일도 비평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그 거리도 춤 비평의 자리다.







## 베르사유 ①

# 예술과 과학을 융성시킨 군주 루이 14세

이장직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총괄연구원



파리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24km 떨어진 베르사유는 원래 루이 13세의 사냥터에 지은 별장이었다. 루이 14세(1638-1715)도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몇 차례 방문했다가 주변의 경관에 탄복해 이곳에 성을 지었고 1682년에는 아예 왕실을 루브르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왕세자 시절 귀족들이 일으킨 반란에 파리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도망을 다니거나 붙잡히는 수모를 당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튼 베르사유로 ‘행정수도’를 옮기면서 시민들의 등쌀도 피하고 귀족들을 한적한 시골에서 며칠씩 지내도록 하여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왕족은 물론 신하와 방문객을 위한 침실을 비롯해 왕실 예배당, 오페라하우스, 만찬장, 마구간이 대형 정원과 산책로, 연못을 내려다보고 있다. 빈 왼부른 궁전, 포즈담 상수시 궁전도 베르사유를 벤치마킹했다. 베르사유는 루이 필립이 왕위에 오른 다음 1837년부터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해 방문객을 맞고 있다.





1 베르사유 정원의 아폴로 분수 2 장 노크레 '루이 14세 가족의 신화적 초상화'(1670년)

베르사유가 소장 중인 루이 14세의 초상화 가운데 약기가 소품으로 등장하는 작품도 있다. 장 노크레의 '루이 14세 가족의 신화적 초상화'(1670)에는 고대 그리스의 약기 리라가 나온다. 여기서 루이 14세는 태양과 음악의 신 아폴로로 분장했다. 붉은 휘장으로 덮은 금색 캐노피 아래 대리석 위에 왕권의 상징인 홀을 들고 앉아 있어 그가 주인 공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루이 14세의 오른쪽 아래에는 스페인 출신의 왕비 마리 테레즈가 고대 로마의 수호신 유노로 분장했다. 그리스 신화의 헤라와 동격으로 조연자, 여왕, 풍요, 출산의 상징이다. 왕비는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손에는 횃불을 든 결혼의 신 하메스로 분장한 왕자 루이의 손을 잡고 있다. 오른쪽의 왕자 필리프샤를은 큐피트로 나온다. 맨 오른쪽 위에 자리잡은 몽팡시에 여공작은 앙리 4세의 손녀다. 43세로 루이 14세보다 열한 살 많은 사촌누이인데 평생 미혼으로 지냈다. 달, 사냥, 순결의 여신 디아나로 분장했으며 초승달 모양의 머리띠를 두르고

손에 창을 들고 있다.

루이 14세의 모후 안 도트리슈는 그림의 왼쪽에 자리잡은 오를레앙 필립 공의 가족과 루이 14세 사이의 잠재적 불화나 대립을 중재하듯 그림 한복판에 앉아 있다. 풍요와 다신, 대지의 여신 시벨로 나오는데 손에 주권의 상징인 지구분을 들고 있다. 맨 왼쪽의 앙리에트 마리는 루이 13세의 누이인데 바다의 여신 암피트리테로 나온다. 신화 속 남편 포세이돈의 상징인 삼지창을 들고 있다. 필립 공은 오른손에 금성을 들고 있다. 그 오른쪽은 나중에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와 결혼하는 마리 루이즈다. 황금 날개를 단 심부름꾼의 여신 이리스로 나온다. 마리 루이즈 위에는 필립 공의 아내 앙리에트 당글레테르가 양손에 화환을 들고 꽃과 풍요의 여신 플로라로 나온다. 루이 14세 왼쪽의 세 자매는 루이 14세의 삼촌인 가스통 도를레앙 공작의 딸들이다. 거울 옆에서는 필립 공의 아들 둘이 아폴로



3 장 가르니에 '예술과 과학의 보호자 루이 14세'(1670-72년) 4 로맹 에티엔 가브리엘 프리의 '베르사유 궁전 앞마당'(1847년)

의 상징인 리라를 연주한다.

이 가족 초상화는 루이 14세의 남동생 오를레앙 필립 공의 전속 화가인 장 노크레가 생클로드 성에서 완성했다. 이 대형 그림을 누가 주문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를레앙 필립 공의 사저인 생클로드 성에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르봉 왕가를 '신들의 회합' 또는 팡테옹에 비유한다. 루이 14세는 태양, 몽팡시에는 달, 필립 공은 셋별이다. 왕실의 서열에 따라 밝기의 순서가 정해진다.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우주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듯 모후 안 도트리슈를 중심으로 왕족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합하고 사랑하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은 것 같다.

'예술과 과학의 보호자 루이 14세'는 장 가르니에(1632-1705)가 1670-72년에 그린 단독 초상화다. 루이 14세는 대외적으로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대내적으로는 예술과 과학을 융성시킨 군주로 기억되길 원했다. 왕세자 시절부터 수학, 라틴어, 역사보다 회화, 건축, 음악, 무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여년간 매일 두 시간씩 발레 연습을 빼먹지 않았다. 유럽 최

고의 연주자들로 궁정악단을 결성했고 미술아카데미, 음악아카데미, 건축아카데미, 무용아카데미도 설립했다. 예술에 대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랑스의 전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물화가 장 가르니에는 1670년 왕립미술아카데미 회원 자격을 얻었다. 입회 작품으로 제출한 것은 대형 메달리온에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넣고 주변에 비올라다감바, 베이스비올, 바이올린, 기타, 뒤편, 악보, 별자리를 그려 넣은 지구본, 콤파스, 책 등을 배치한 정물화다. 이밖에 그림 전면에는 포도송이와 복숭아, 배경에는 기둥이 보인다. 맨 오른쪽에는 지혜와 전쟁, 예술과 학문, 기술의 수호신 아테나의 흉상이 있다. 루이 14세의 통치는 아테나처럼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프랑스는 악기가 빛어내는 화음처럼 아름답게, 포도송이처럼 풍요롭게 과학과 문화예술을 꽃피운 문화선진국임을 보여준다. 루이 14세는 1666년과 1667년에 콜베르의 조언에 따라 왕립과학아카데미와 파리천문대를 설립했다. 청나라의 강희제와는 수학과 과학 교류의 물꼬를 텃다. 타원형 프레임 속의 루이 14세의 모습은 1665년 경 클로드 르프레브르가 완성한 초상화를 바탕으로 그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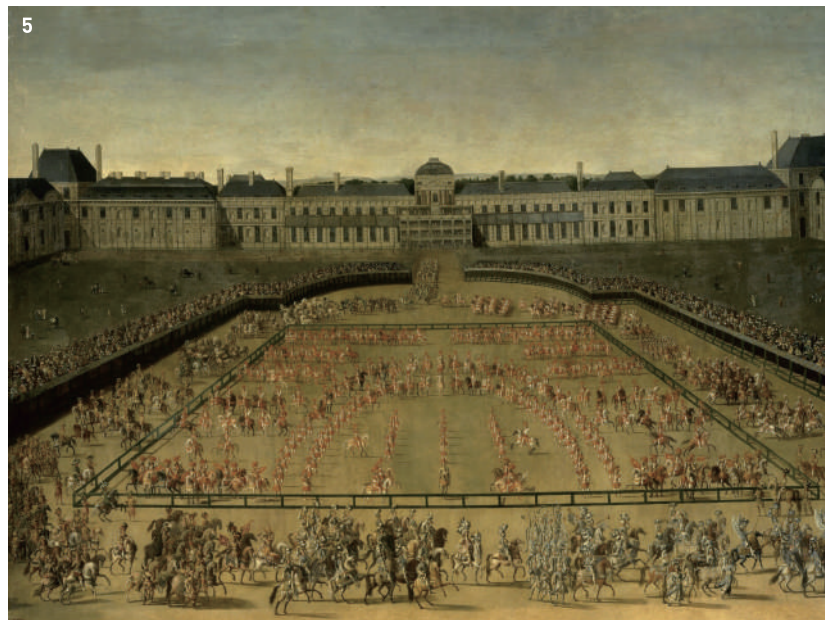
다. 베르사유에는 앙리 테스트랭이 그린 ‘예술의 보호자 루이 14세’(1666)도 있는데 왕립미술아카데미가 위촉한 그림이어서인지 여기엔 조각상, 콤파스, 붓과 팔레트 등 천문기하학과 미술 관련 도구만 나온다.

루이 14세는 1661년 3월 9일 섭정 마자랭이 세상을 떠나자 비로소 친정을 펼치기 시작했다. 약관 23세가 되던 해다. 11월 1일에는 왕자까지 태어나면서 왕조의 미래가 더욱 밝아졌다. 자신의 통치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루이 14세는 1662년 6월 5일부터 이틀간 왕자 탄생을 축하하는 대대적인 기마집단 열병식을 개최했다. 그랑 카루젤의 첫날은 퍼레이드, 둘째 날은 전쟁 분위기마저 감도는 불꽃 튀기는 경연으로 꾸몄다. 준비와 연습에 몇 달이 걸렸다. 베르사유를 벗어나 루브르와 킬리리 궁전 사이의 공간을 장소로 택한 것은 파리 시민들에게 자신의 위광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테라스와 목재 스탠드를 세웠고 1만 5,000명이 볼 수 있는 관람석까지 준비했다. 관객은 반드시 가면을 쓰도록 했다. 거대한 야외 극장이나 다름없었다. 1559년 앙리 2세가 사고로 죽은 뒤로는 왕실 주최의 마상시합은 프랑스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니 거의 100년 만에 펼쳐지는 볼거리였다.

무대디자인은 이탈리아 출신의 카를로 비가라니가 맡았다. 루이 14세의 의상 디자인과 각종 행사와 축제의 무대 디자인을 맡았던 앙리 기세이가 그린 ‘1662년 6월 5일 킬리리 궁에서 왕자 탄생 축하를 위해 루이 14세가 베푼 마상시합’에 역사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행사에는 1,297명이 출연했고 이 가운데 655명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림은 루브르에서 킬리리 쪽을 바라본 모습이다. 마차도 루브르 궁전의 맨 위층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린 것 같다. 중앙 아래에 말을 탄

루이 14세의 모습이 보인다. 로마군을 이끄는 황제로 출연한 그는 아폴론의 후광을 입은 태양왕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 앞에는 나팔수와 북 연주자가 국왕의 행차를 알린다. 트럼펫은 행사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시그널인 동시에 최고 권력의 상징이다. 축제 분위기를 돋우는 데도 안성마춤이다. 음악학자 발터 잘멘에 따르면 트럼펫은 ‘명예훈장’, 통치권력의 표식이자 귀로 들리는 문장(紋章), 국가를 대표하는 악기였다. 트럼펫 연주자들은 친위대처럼 지배자의 권위를 대변했다. 킬리리 쪽 스탠드에는 모후 안 도트리슈, 왕비 마리 테레즈를 비롯한 왕족과 각국 대사들이 앉았다. 우승자에게 주는 상품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루이 14세 초상화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상자에 담았다. 행사를 주관했던 프피트 아카데미는 그랑 카루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주요 참석자들의 면면을 그린 삽화 90점을 실은 호화판 기념 책자를 8년 걸려 완성해 왕실의 공식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그랑 카루젤은 루이 14세의 재위 기간 중 파리에서 열린 마지막 왕실 축제였다.

5 앙리 기세이 ‘1662년 6월 5일 킬리리 궁에서 왕자 탄생 축하를 위해 루이 14세가 베푼 마상시합’



아름다운 마당에서  
당신에게 건네는 인사

## 갤러리 하이

박나무 자유기고가

수영강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원래 있던 이름 앞에 센텀을 붙이는 게 유행이 되었다. 처음엔 어색하기 짝이 없던 센텀이라는 이름이 이전 가치를 높이는 접두어가 되었고, 한자 일색인 중고등학교 이름 앞에 외래어를 붙인 드문 사례로도 기록된다. 센텀시티의 대부분은 재송동을 물고 있고, 이제 재송동은 옛날의 정책이주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은 것도 같다. 그러나 해운대로를 중심으로 장산 쪽에 자리 잡은 옛 재송동의 집과 사람들은 새로 지어진 몇 아파트를 제외하면 그대로이며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도 여전하다. 값비싼 아파트가 슬금 슬금 낮은 주택과 골목길을 밀어내는 모습이 그려진다.

다닥다닥 서로의 등과 등이 밀착된 주택단지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동화처럼 자리 잡은 갤러리 하이를 찾았다. 경계선과 같은 곳에서 서로

를 향해 ‘하이~’ 하며 간편하면서도 경쾌한 인사를 건네는 것 같다. 좁은 재반로를 벗어나 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면 담벼락엔 넝쿨장미가 가득하고 아름드리 회화나무에선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다. 차곡차곡 예쁘게 쌓아 올린 돌계단을 열 몇 개 올라서면 자그마한 갤러리를 둘러싼 넓은 마당이 가장 먼저 반겨준다. 온통 초록빛, 우리가 노래하던 저 푸른 초원 위에 지었다는 그림 같은 집이 여기가 아닐까?

갤러리를 찾아왔는데 마당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고 싶지 않다. 바람까지 살랑살랑 부는데 차양 아래 마련된 벤치에서 하루 종일이라도 마당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수 있겠다. 각종 커풀을 이룬 토우들이 풀숲 곳곳에서 사랑을 속삭이는가 하면, 자그마한 강아지 모양의 토우들도 내 앞에 와서 꼬리를 흔든다. 꽃송이가 아이 머리통만한 목단에







“지역주민들의 격의 없이 들어와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타리로 담을 치지 않고,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하고 꽃줄기가 안팎을 드나들도록 만들었다.”

서부터 새끼손톱만한 개불알꽃까지 온갖 꽃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그레 이것이 갤러리지, 벽과 지붕 사이에 그림을 걸어둔 곳만이 갤러리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곳에서 결혼식이나 연주회를 열어도 좋겠다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영화 대표도 갤러리를 그런 공간으로 열어두고 싶다 한다.

“지역주민들의 격의 없이 들어와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타리로 담을 치지 않고,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하고 꽃줄기가 안팎을 드나들도록 만들었다. 많은 분들이 들어가도 되느냐, 입장료는 없느냐, 물어보시는데 그나마 갤러리 이름이 ‘하이~’라서 다행이다 싶다. 한자로 된 목적인 이름이라면 사람들이 더 겁을 내지 않았을까” 김 대표가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는 고물(이라 쓰고 쓰레기라고 읽는다)을 쌓아두는 곳이었다고 한다. 이정연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낼 가마터를 시내에서 찾다 만난 곳이 참 좋은 갤러리가 되었다. 그리고보니 마당에서 나를 반겨준 토우들은 모두 이 작가의 작품이었다.

김 대표와 이 작가는 오랜 친구이고 갤러리를 운영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며, 또 국제 소롭티미스트 해운대클럽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좋은 동지이기도 하다. 우리가 만났을 때도 다음 날부터 이틀간 열릴 자선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참이었다. 주변의 선한 의지들을 모아 소녀가장과 미혼모를 돕는 일에 폭 빠져 있다.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후원금을 모아 장애를 가진 어린 연주자를 돕는다. 형편이 어려워 식을 올리지 못한 커플들이 원한다면 작은 결혼식을 열어도 좋겠다고 한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곧 이 마당에서 따뜻한 소식들이 줄줄이 들려올 것 같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들이 운영하는 공간이다.

갤러리를 찾아와서 너무 바깥만 쳐다보고 있었네. 실내의 바닥과 천장과 조명은 공을 제대로 들어서 관객들이 관람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훌륭한 공간이다. 개관 3주년을 맞아 서용선의 자화상전이 7월 7일까지 열리고,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던 기획전시들이 계속 줄을 서 있어서 당분간 대관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덕분에 갤러리를 찾으면 늘 풍성한 작품의 바다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단, 오후 5시에 문을 닫으니 일정을 잘 짜야 한다. 지역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이 작가와 함께하는 토우 만들기도 마당 한쪽에서 진행될 것이고, 꽃과 나무들은 더욱 아름답게 자랄 것이다. 갤러리 하이 가 먼 옛날 가득했던 믿음직한 소나무처럼 재송동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고, 밀려드는 재개발 광풍이 이 갤러리를 비켜서 지나갔으면 한다.

■ 문의 : 갤러리 하이 784-5588, [www.instagram.com/gallery.hi](http://www.instagram.com/gallery.hi)  
※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5:00(일요일 휴무)

갤러리를 찾으면 늘 풍성한 작품의 바다에 빠질 수 있다.



## 빛과 시간의 동행 사유와 표현의 세계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쁘리야 김 사진작가

사진은 누구나 찍는 것이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고 있지만 누구나 잘하지는 못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만의 사진스타일을 꾸준히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 누구나 멋진 사진을 찍게 될 것 같지만 사진도 정도(正度)가 있는지라 어느 정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진을 잘 찍으려면 우선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하고, 보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사진은 주변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관찰하며 본 것을 시각적 결과물로 특별하게 보여주는 장르로서 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개인이 가진 특정한 흥미나 소재, 주제나 문제의식, 감성과 스타일에 사유가 곁들여지면 사진은 사진예술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진을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문화예술아카데미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에서는 무엇보다 사진을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펼쳐가는 하나의 열린 사유의 과정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매체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표현의 장이라고 강조합니다.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익숙한 것들을 낯선 시각으로 담아내고 자신의 사유에 깊이 침잠하며 피사체와 조우하는 시간은 사진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카데미 강좌는 1년에 4분기로 분기별 10주씩 진행되며 응용과 기초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에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사진의 이론과 실기, 카메라의 이해와 출사, 사진 리뷰, 포트폴리오 제작, 연말 정기전을 큰 축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을 통해 사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사진으로 사유하는 작업의 결과물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기초반에서는 사진을 처음으로 접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사진과 카메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진이란 무엇인가, 사진의 본질, 좋은 사진의 조건, 카메라의 이해, 구도와 앵글 및 색(WB)의 이해, 픽처스타일의 이해, 사진 출사 및 리뷰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용반은 그동안 배운 이론들로 출사와 리뷰, 그리고 개인별 작품 제작에 매진하게 됩니다. 또한 사진미학, 매체철학, 사진론, 사진비평 등의 이론 수업들로 본인의 사진철학을 다듬어 가게 됩니다. 개인 면담을 통해 각자 사진에 대한 사유를 공유하고 스타일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1년 동안 제작합니다. 응용반은 중급 이상의 사진반으로 사진에 대한 사유, 감성, 느낌, 표현, 분석 등의 학습을 통해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진행합니다.

사진은 흔히 빛과 시간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유와 표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진은 결국 빛이 닿는 피사체를 발견하고 시간을 주어 촬영하는 과정에서 사유가 들어가 표현되는 매체입니다. 그것이 사실적이든, 비사실적이든, 반사실적인 것은 단지 예술적 표현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진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표현법을 배울 때 사진의 세계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수업에서는 단순한 기록의 차원이 아니라 표현과 사유, 철학과 자유, 창의력과 상상력들 속에서 꿈을 꾸며 꾸준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심이 있으

신 분들은 문화예술아카데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창작과 표현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사진적 사유를 통해 예술적 자유를 함께 느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 사진작가 뿌리야 김은 2017년부터 문화예술 아카데미 강사로 참여해 오고 있으며 25회의 개인전과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에서 다수의 그룹전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사진작가로서 수강생들의 사진에 대한 니즈를 분석하여 사진의 기초에서부터 사진미학까지 아우르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사진이 수강생들의 개인전을 기획할 정도로 사진의 인적 인프라를 육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뿌리야 김은 사진이 어떻게 예술이 되어 가는가에 대한 작가주의적 시각과 창의성, 상상력, 자유로움을 특히 강조합니다. 시지각으로서의 사진, 이미지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의 사진, 열린 사유와 표현매체로서의 사진 등에 대한 토의를 수강생들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시대 사진예술의 이해와 예술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며 차별화된 사진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INVITATION TO THE ARTS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간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 궁중에서 연주되던 전통음악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이 6월 1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품격있는 전통음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수일 악장의 집박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왕의 거동 때와 군대의 행진, 개선 때 연주되었던 취타풍류 5곡(취타-절화-일승월항-금전악-군악)이 연주되며, 2부에서는 우리의 전통성악곡인 가곡에서 노래없이 연주하던 기악곡인 '자진한입'을 들려준다.

1부 첫 곡으로 연주되는 '취타(吹打)'는 관명(管名)으로는 '만파정식지곡(萬波停息之曲)', 현명(絃名)은 '수요남극지곡(壽耀南極之曲)'이라 불린다. 행군악인 '대취타'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곡으로, 궁중의 연회에서 연주되기도 했다. '취타' 뒤를 이어 연주되는 행진곡풍의 관악곡인 '절화(折花)'는 '길군악(路軍樂)'이라고도 불리며 곡이 매우 씩씩하고 시원스럽다. '길타령' 또는 '허튼타령'이라 불리는 '일승월항(日昇月恒)'은 궁중정재(宮中正才: 궁중에서 연회나 의식 때 추던 춤)의 반주곡으로 연주되던 타령조의 곡으로, 타령 장단에 얹어져 있

어 매우 흥이 넘치며 멋스럽다. 이어지는 '금전악(金殿樂)'은 '별우조타령(別羽調打令)'이라고도 불리는데, '평조회상(平調會商)'의 타령4장 형식과 매우 유사하며 흥청거리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곡이다. 1부 마지막 곡인 '군악(軍樂)'은 평조회상의 군악 악장(樂章)과 장단이나 약조 선율이 같으나 초장(初章)에서 한 장단이 늘어나고 2장 5각까지는 전혀 다른 가락으로 변주되어 이채로움을 띤다.

2부에서 연주되는 '자진한입'은 조선 후기 궁중음악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민간악사들에 의해 삼현육각(三絃六角: 향피리2, 대금, 해금, 장구, 북) 편성으로 연주되면서 '사관풍류', '향악관(鄉樂管)풍류'라고도 불린다. 우조두거, 변조두거, 계면두거, 평롱, 계락, 편수대엽 등 6곡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조두거와 변조두거를 '경풍년(慶豊年)', 계면두거를 '염양춘(艷陽春)', 그리고 평롱, 계락, 편수대엽을 '수룡음(水龍吟)'으로 구분지어 부르기도 한다. 가곡을 반주할 때는 거문고, 가야금, 피리(세피리), 대금, 해금, 장구가 기본편성이나, '자진한입'은 향피리, 대금, 소금, 해금, 아쟁, 장구로 편성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가야금과 거문고를 새롭게 편성한, 국악관현악 형태의 합악으로 재편곡된 것을 연주한다.

**일 시** 6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6회 정기연주회 비제의 교향곡 제1번



● 비제의 유일한 교향곡인 '교향곡 제1번'으로 마련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6회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탄탄한 경력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고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해석과 놀라움을 선사한 노련함'으로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윤수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과 비제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첫 곡은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제2번'으로, 피아니스트 이윤수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 곡은 당시 러시아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지휘자였던 안톤 루빈스타인이 자신의 파리 데뷔를 위해 생상스에게 위촉했던 작품으로, 초연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으나 이후 평론가들로부터 재평가를 받으며 19세기 말 이후 피아니스트들의 필수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협연자 이윤수는 서울예고 1학년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유학, 비엔나 국립음대 학, 석사 과정과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이후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지

난 2003년 오스트리아 국립방송의 초청 독주회로 비엔나에서 데뷔한 이래 서울시립교향악단, 뉘른베르크 심포니,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르메니아 국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했으며 오스트리아 뮤직페라인홀,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프라하 스메타나홀 등 굵직한 무대에 오르며 차세대 연주자로 성장했다. 이윤수는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는 한편, 앙상블 NUNC를 창단하여 베토벤 트리오 전곡 연주를 기획하는 등 연주자로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의 메인곡인 비제의 '교향곡 제1번'은 3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비제가 작곡한 3개의 교향곡 중 유일하게 악보가 남아있는 작품이다. 비제는 죽기 직전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 모두를 불태웠는데, 이 곡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6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 파리음악원 도서관에서 초고가 발견되며 뒤늦게 빛을 보게 되었다. 이 곡은 비제 나이 17세에 작곡한 곡으로, 비제의 천재성과 독특한 개성이 작품 곳곳에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1947년 안무가 조지 발란신이 파리오페라극장에 올린 발레 '수정궁'에 이 곡을 사용하면서 더욱더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 시 6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합창단 제182회 정기연주회 위로의 메시지



-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대규모 합창음악회 '위로의 메시지'를 마련한다.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지휘자'로 호평받는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애국선열의 송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평화로 나아가자는 마음을 담아 레너드 번스타인의 '치체스터 시(Chichester Psalm)', 윌리엄 월튼의 '벨사살의 향연(Belshazzar's Feast)' 두 곡을 들려준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치체스터 시'는 지난 1965년 영국 남부 해안 근처의 소박한 도시 치체스터 성당에서 열리는 '남부성당 축제(Southern Cathedrals)'를 위해 성당의 오르가니스트 존 버치와 지구장인 사제 월터 허서가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의뢰한 곡으로, 일반적인 미사곡과 달리 히브리어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은 그의 교향곡 제3번 '카다시'와 함께 유대인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6편의 시편을 나누어 3악장으로 구성했으며 곡의 일부는 그가 초기에 스케치했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주제를 사용하기도 했다. 초연은 7월 15일 뉴욕 필하모닉 홀에서 번스타인 자신의 지휘로 열렸으

며, 7월 31일 남부성당축제에서는 존 버치의 지휘로 무대에서 연주됐다. 지휘자 카라얀이 '금세기 최고의 합창곡'이라 극찬한 윌리엄 월튼의 '벨사살의 향연'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벨사살(벨사자르) 왕의 이야기에 기초한 칸타타로, 생동감 넘치는 가사와 풍부한 화성, 눈부신 관현악 편성으로 20세기 중요한 합창곡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고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이 출연하는 대규모 합창 무대로, 합창애호가들의 기대가 크다.

'벨사살의 향연'의 솔리스트로 출연하는 세계 최정상 바리톤 고성현은 벨칸토 발성의 교과서라 불리며 수많은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해오고 있다. 이태리 유학시절 푸치니 국제콩쿠르 1위, 밀라노 국제콩쿠르 1위,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 국제콩쿠르 1위에 입상하며 국제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에서는 난파음악상, 젊은 음악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공연전통 예술분야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육관문화훈장(대통령상)을 수훈했다. 고성현은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일 시 6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극단 제70회 정기공연 벚꽃동산



● 부산시립극단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체홉의 ‘벚꽃동산’을 제70회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벚꽃동산’은 근대 연극의 주류가 사실주의로 확립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의 4대 장막극 중 하나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귀족과 농노로 구분된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 가치가 새로운 권력으로 자 잡기 시작한 러시아 말기를 배경으로, 몰락해가는 귀족 가문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슬픔을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연극제에서 수차례 연출상을 수상하며 부산 연극의 대표 연출가로 자리매김한 연출가 강성우가 부산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춘다.

‘벚꽃동산’은 러시아 귀족 사회가 몰락하던 혼돈의 시절, 기존 가치들이 붕괴하는 가운데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도도한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인간 군상의 이야기로, 이는 안톤 체홉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발견되는 주제의식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팬데믹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100년이 훌쩍 넘어버린 체홉의 ‘벚꽃동산’은

이러한 현 시대를 관통하며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

연출가 강성우는 이번 작품에서 원작의 흐름을 그대로 살리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몰락해가고 소멸해가는 부질없는 삶이라는 인간 근원적 부조리를 드러냄으로써 체홉이 추구하는 주제의식을 구현하고자 했다. 특히 서정적이고 간결한 대사, 대사 사이의 침묵, 다양한 효과음, 치밀하게 계산된 대사의 묘미, 다면적인 무대사용 등 무엇보다 특유의 잔잔하고 애수에 찬 느낌을 주면서 불명료한 긴박감과 박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현재 극단 누리에 상임연출가로 있는 강성우는 일상에 깃들여 있는 세밀한 정서를 탁월하게 포착해내며, 절제된 무대형상화를 추구하면서도 배우가 가진 개성을 잘 살려내는 연출로 정평이 나 있다. ‘벚꽃동산’과 부산시립극단 그리고 연출가 강성우의 만남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일 시 7월 1일(목)-3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I



●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2021년 두 번째 무대가 7월 2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정기연주회에서는 감상하기 힘들었던 실내악 걸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다. ‘A Midsummer Night’s Chamber Music’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과 재즈, 탱고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여름밤을 수놓는다.

첫 곡인 아론 코플랜드의 ‘조용한 도시(Quiet City)’는 어윈 쇼의 연극 ‘조용한 도시’를 위한 부수음악으로, 청아하면서도 묵직한 트럼펫과 잉글리쉬 호른의 연주가 인상적인 곡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박승훈의 트럼펫과 노지연의 잉글리쉬 호른, 이은정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준다. 이어서는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탱고의 혁명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무대로, ‘탱고의 역사’를 들려준다. 피아졸라는 기존의 빅밴드 편성의 탱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클래식 실내악 편성을 시도하면서 현대적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누에보 탱고’를 선보였는데, ‘탱고의 역사’

는 이런 피아졸라의 탱고 철학과 190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탱고의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는 곡이다. 총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날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우소라, 피아니스트 이은정의 연주로 ‘1900년 선술집’, ‘1930년 카페’, ‘1960년 나이트클럽’ 등 세 악장을 들려준다.

현재 줄리어드 교수로 있는 에릭 에바즌은 트럼펫, 트롬본 등 금관악기를 위한 다양한 곡들을 작곡했는데, 그의 곡 베이스 트롬본을 위한 협주곡’을 트럼보니스트 방제표, 피아니스트 이은정의 연주로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피아졸라의 대표작인 ‘망각(Oblivion)’, ‘리베르탱고’와 ‘신비한 푸가(Fuga y Misterio)’를 현악앙상블로 들려준다. 누에보 탱고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망각’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실내악으로 작곡되었지만 이후 클라리넷, 오보에, 오케스트라, 색소폰 4중주 등 다양한 버전으로 편곡되어 연주되고 있다. ‘리베르탱고’는 피아졸라가 1973년에 발표한 7곡의 탱고 모음곡 중 하나이며, ‘신비한 푸가는 피아졸라가 작곡한 푸가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재, 비올리스트 최영화, 첼리스트 전수정, 베이스리스트 임미형, 퍼쿠션니스트 김자연이 호흡을 맞춘다.

**일 시** 7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



# 2021년도 제18회 부산국제연극제

The 18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21

6. 11<sup>금</sup> ~ 6. 20<sup>일</sup>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네이버TV)

개·폐막작 전석 3만원(온라인 플랫폼 무료)  
부산국제연극제 802-8003, www.bipaf.org



매년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가 6월 11일 그 화려한 축제의 문을 연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으로 비대면 온라인축제로 열렸던 부산국제연극제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온·오프라인이 함께하는 연극축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지난 2004년 첫발을 내딛은 후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부산국제연극제는 그동안 세계 각국의 우수한 공연 및 국내 유망 극단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국내는 물론 각국의 다양한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민간교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이번 2021 부산국제연극제에서는 벨기에, 미국,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9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초청공연과 거리극 경연프로그램 '다이나믹 스트리트', 그리고 지역 상생 프로그램 '힘내라 부산!' 등이 펼쳐진다. 초청공연으로는 2021 부산국제연극제의 화려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코믹 마살아츠 퍼포먼스 '점프'(개막작)와 경남도립극단 '토지'(폐막작)를 비롯해 한·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 초청작인 극단 포인트제로 '잊혀진 땅'(벨기에), 극단 샬리외트 '완벽한 여정'(벨기에), 그리고 해외초청작으로 극단 제프소벨 'HOME'(미국), 극단 아날로그 '피날레'(독일) 등 총 6개 작품이 선보인다.

동양무술을 중심으로 한 고난도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



디를 혼합하여 '년버벌 코믹 마살아츠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인 개막작 '점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90개국 160여 개 도시에서 공연되며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폐막작인 '토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담아낸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그동안 마당극과 영화, 드라마로 제작된 적은 있으나 연극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겨운 사투리와 지역 전통의 춤과 민요를 조화롭게 담아내면서 원작의 감동을 생생히 재현하고 있다. 특히 개·폐막작은 축제의 첫날과 마지막날인 6월 11일과 12일, 6월 19일과 20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유일하게 대면공연으로 만날 수 있다.

올해는 한국과 벨기에 수교 120주년을 기념해 벨기에 극단의 2개 작품이 선보인다. 극단 포인트제로의 '잊혀진 땅'은 지난 1986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으로 손꼽히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당시 체르노빌에 거주하던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을 취재하며 그들의 증언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철학적이면서도 시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또 다른 작품인 극단 살리와트의 '완벽한 여정'은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피로감을 코믹한 상황으로 연출한 작품으로, 서커스, 몸짓 연극으로 배우의 감정을 전달한다. 이밖에 해외초청작으로 환상적인 일루전과 라이브 음악으로 물리적 의미의 '집(House)'과 정서적 의미의 '집(Home)'의 관계를 탐구하는 미국 극단 제프소벨 'HOME', 무절제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독특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광란의 밤으로 초대하는 독일 극단 아날로그 '피날레' 등 두 작품이 시민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거리극 초청작으로는 듀오 마사와(이탈리아·아르헨티나, 듀오 마사와), 라이프∞희망(대만·말레이시아, 더블뷔), 히라쿠(일본, 요요 퍼포머 히라쿠), 모자가게(일본, 아이디오2), 슈퍼 브레이크댄스(일본, 쇼쇼 무조 브라더스), 빨간 마술 이야기(일본, 카미마로) 등 저글링, 요요, 브레이크댄스, 매직 등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작품이 소개된다.

부산을 닮은 열정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거리극 경연프로그램 '다이나믹 스트리트'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녹화로 진행된다. 스트리트 댄스팀 부블리검프스가 우리나라 대표 고전 판소리 소설 '춘향전'을 오늘날의 음악과 춤으로 재구성한 '도깨비전·남원편', 마임, 춤, 마술, 저글링 등 다채로운 장르를

통합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블러스모션의 전통 코믹 마임쇼 '깨비쇼', 클래식 음악과 서커스를 접목해 눈과 귀가 즐거운 컨템포러리 서커스인 서커스 디 랩 '서커스 클래식', 마술, 마임, 벌룬, 버블, 저글링 등 스토리가 담긴 종합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감성광대 제로의 청춘에 대한 의미의 재해석 '청춘', 스토리텔링과 현대무용, 스트리트 댄스가 조화롭게 혼합된 슬로우스텝:유스 픽업 프로젝트의 '애니웨어', 젊은 다원예술가들로 구성된 극단 가득의 동심 가득한 세상 '빈 공은 왜 이리도 예쁠까?', 저글링 기술과 마술, 퍼포먼스가 결합된 마술사 나무의 '어메이징 쇼', 월드뮤직과 국악을 접목하여 월드 국악이라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펼치고 있는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의 힐링무대 '뮤직트래블 : 따, 따' 등 8개 작품이 수상을 놓고 경연을 펼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 단체를 위해 마련한 지역상생 챌린지 '힘내라 부산!'과 일반부, 전공대학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시민참여프로그램 '10분연극제' 등이 열린다.

올해 부산국제연극제의 개·폐막작을 제외한 모든 작품은 부산국제연극제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네이버TV)을 통해 어디서든 무료로 만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구체적인 일정은 부산국제연극제 공식홈페이지(www.bipaforg)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벨기에 극단 포인트제로 '잊혀진 땅'

## 되뇌이고 기억해야 할 역사를 무대 위로 올리다

부산시립합창단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

◆ 박진홍 음악평론가

5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제181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이 무대 위에 올랐다. 이날 출연진은 부산시립합창단의 가수들과 부산시립극단의 배우, 어린이 배우와 햇살나무 어린이 합창단, 무용수 등이 극 중 역할을, 음악 반주는 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가 맡으면서 100여 명이 넘는 출연진으로 구성된 웅장한 스케일의 무대였다. 근래 보기 힘든 규모의 공연이다 보니 코로나19로 기획 초기 단계부터 연습, 공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나 기획, 준비, 공연의 세밀함과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공연은 뮤지컬과 칸타타를 붙여서 '뮤지컬 칸타타'라는 장르명으로 구성되었다. 선율이 있는 레치타티보, 벨칸토 창법으로 독창, 중창, 합창을 하는 오페라와는 달리 뮤지컬은 극을 중심으로 하고 대사가 있는 현대화된 극음악이다. 그리고 기악 반주에 노래를 하는 극 형식인 칸타타는 원래 종교적 극음악인 오라토리오를 작은 규모로 편성한 것이다. 이번 공연에 '뮤지컬 칸타타'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극을 통해 풀어내고자 한 점과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 새로운 창작품을 통한 음악적 표현에 중심을 두겠다는 의미였다고 생각된다. 아마 공연의 전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구상했던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구현된 것으로 보였다.





음악은 서곡을 포함하여 모두 17곡(서곡, 한가, 민중의 함성1, 그날의 기억, 삶은 그렇게 흘러, 백야의 함성, 피로 물든 땅, 오늘도 내일도, 눈물의 강, 어머니의 노래, 소녀 아리랑, 내 이름은 3028, 그날이 오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민중의 함성2, 우리의 기억, 아! 나의 조국!)이 각 장면에 배치되었으며 작품의 극본과 작곡은 한국과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이진실이 맡았다. 그는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칸타타의 레치타티보를 풀어냈으며 음악을 통하여 각 장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분위기를 담고자 했다고 한다. 음악을 들어 보면, 현대음악적인 화성을 통해 극적 효과를 강조하였고 서정적인 선율을 활용하여 대비시켰다. 또 무대 전반에 걸쳐 우리 전통의 창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적인 정서와 당시 고통받던 이들의 한을 표현하였다. 몇몇 곡에서는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불렀던 노래를 활용함으로써 당시의 분위기를 더욱 명확하게 묘사하고자 했다.

막이 오르기 전 서곡이 연주되었다. 웅장함과 긴장감, 잔잔하게 흐르는 슬픈 곡조, 아리랑과 그 뒤를 따른 비장함이 뒤섞여 있었다. 산새 울고 바람 부는 고향 산천의 풍경이 숨어 있고 많은 감정과 상황이 하나씩 부각되며 일제강점기 당시의 혼돈스러운 상황이 잘 표현되었다. 이어서 막이 오르고 당시의 참상과 그 장면을 휘감은 한이 서린 전통 창, 역경을 딛고 울부짖는 대한독립만세가 시간에 따라 지나갔다. 장면과 음악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면서 작품에 대한 초반 몰입도를 높여 주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극의 흐름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분위기들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노래했으며 완성된 표현력을 보여 주었다. 제6곡 '백야의 함성'에서는 상황과 감정을 음악적으로 치밀하게 쌓아 올린 노래를 탄탄하고 풍부한 음색의 합창으로 구현하여 기억에 남는다.

공연 전반에 걸쳐 긴장감과 애환, 한의 정서를 적절히 잘 유지해서 감정선을 매우 다이나믹하게 펼쳐냈다. 또 음악의 분위기와 무대의 전환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동, 구조, 짜임이 매우 효율적이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음악의 구성 면에서 독창, 중창, 합창의 배치가 잘되어 단조롭지 않고 흥미도를 높였다. 애끓는 상황과 무너져 내려앉는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슬픈 노래와 극으로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해방을 맞았다.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인해 고통스럽



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이들에게 해방의 과정은 중요치 않았으리라. 한순간 찾아온 해방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런 해방감이 마지막 노래 '아! 나의 조국'에서 터져 나왔다.

무대 장치 면에서 상징적이지만 매우 직관적인 디자인과 장치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분위기와 메시지를 잘 전달하였다. 강금 당한 주인공의 절박한 상황과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문살을 여러 조각으로 분리하여 공중에 띄워 놓았고, 위안부로 끌려온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둥근 매듭의 긴 줄을 여러 개 매달아 놓았다. 노래와 극만으로 장면을 진행시키는 일반적 형태에서 탈피하여 미리 준비한 연출 영상과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진들을 무대 뒤 벽면에 재생하여 표현력과 몰입도를 높였다.

음악적으로도 작품의 구성, 표현력이 풍부한 극적 효과를 자아냈지만 전달되는 메시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이번 공연의 내용은 아프지만 기억하고 되뇌어야 할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이다.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진행형이다. 시립예술단체에서 훌륭한 예술성을 바탕으로 역사,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창작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도 부산시립합창단이 순수예술을 통한 미적 향수와 더불어 경계를 넘나들며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가진 활동을 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 서구의 문화그늘 속에서 밀려난 전통마술 부활

### 미스터리 매직 퍼포먼스 '스냅'

◆ 강열우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집행위원장  
부산예술대학교 교수

객석 양쪽 벽면과 무대바닥에 그림이 움직이고 조명은 감추어진 그림들을 조합하듯이 천천히 창조해낸다. 음악은 디즈니랜드에 입장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따르고 무대에는 작품을 위한 오브제들이 눈에 들어온다. 음악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공연의 첫걸음에 연기자 한 명이 나와 투명한 통에 빨간 스카프를 넣는다. 다시 두경을 달고 손으로 마법을 넣으니 빨간 스카프는 자유를 만끽하듯 춤을 춘다. 또 다른 연기자는 우산으로 장난을 친다. 넘어뜨리고 바로 세우고 넘어뜨리고 바로 세우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이번에는 우산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마지막 연기자는 그림책을 들고 나왔다. 펜으로 그림책에 얼굴을 그린 뒤 얼굴의 눈, 코, 입 등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한다. 전반전 공연의 분위기가 흥미로워지자 객석에서는 박수소리가 나오고 세 명의 연기자들은 몸을 빠르게 움직여 무대와 객석을 오버랩시키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연출을 이어간다.

가족애와 신비스러운 스토리를 가진 영미권의 동요 '할아버지 시계' 속으로 장난치기 좋아하는 요정 트릭스터와 함께 관객들은 <스냅>의 미스터리 퍼포먼스에 빠져든다. 공연은 시종일관 관객들을 일상에서 만끽하지 못한 것을 돌려주려는 듯 환상의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마술사들의 실력도 <스냅> 안에 녹아있다. 현란한 손기술로 끊임없이 생기면 사라지고 사라졌다 싶으면 생기고를 반복하며 관객들의 눈을 의심케하는 카드마술을 선보인다. 요정들이 사건을 전개하고 만드는 이야기에 몰입되면서 어느새 관객들은 저글링과 비둘기 마술, 그리고 빼어로가 안내하는 어린 시절, 추억 같은 마술을 흠뻑 즐기기에 충분하였다.

# Review





장면마다 적절한 긴장과 재미를 반복하는 동안 객석의 어린 관객들은 트릭스터들의 행동에 도움이라도 주려는 듯 계속해서 '뒤에', '조심해'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날린다. 흥미로운 긴장을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또는 가만히 있는 물체가 움직이고 스크린에는 대형 커튼이 등장하듯 모든 것이 상상에 상상을 더해가는 극의 전개와 무대장치, 조명 등이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이런 것은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일까? 우리는 어디까지 눈으로 보고 받아들여야 할까? 고정된 인식의 틀과 불완전한 시각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 착각일까? 처음 등장한 그림자놀이, 손으로 자연물의 모습을 취하는 그림자놀이의 모습은 무엇이 실체이고 허상인가에 대한 질문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 너머, 상상의 공간으로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스냅>의 공연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어져 온다. <스냅>은 장난치기 좋아하는 요정 '트릭스터'를 등장시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을 통해 의도치 않은 여행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술은 본래 환상에서부터 시작하여 환상에서 끝나야 환상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만큼 다른 예술분야보다 특수성을 발휘해야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스냅>은 마술사들의 마술 기술뿐만 아니라 탄탄한 스토리텔링, 요정들의 연기력, 독창적인 무대디자인과 조명, 거기에 과학의 스펙트럼과 결합한 각종 이펙트들이 그것이다.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이 이어졌고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출연진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는 잔걸음으로 극장을 빠져 나왔다.

<스냅>은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아시아인 아츠어워드 대상을 수상했고 그것에 힘입어 미국 브로드웨이 42번가의 뉴빅토리 극장에 초대되어 인기를 끈 작품이며 국내에서는 각종 공모에 선정되는 등 마술계에서는 보기드문 새로운 작품으로 인식되며 인기를 받고 있다. 그런 작품을 보고 뭔가 허전하고 찝찝함을 감출 수 없는 이 마음은 어떤 것일까?

사실 한국마술은 세계최강이다. 예로부터 손기술이 뛰어나 도



자기, 옷칠, 금속공예, 무예 등 무수히 많은 손재주들이 있었고 그중 마술도 신라시대 때 궁중에서 음악, 무용과 더불어 '정재'처럼 연희된 바도 있고 조선 중기에는 실재 인물인 전우치가 도술과 환술, 둔갑술로 부패한 관리들을 괴롭힌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기도 하다. 또한 버나돌리기, 줄타기, 땅채주, 농악, 판소리와 더불어 남사당패의 정식연희종목으로 '얼른'이라는 마술이 존재했었다.

구한말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남사당패의 쇠퇴와 몰락은 궁이나 양반집의 잔치마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환술을 사라지게 했고 6·25 동란 이후 서구의 문화제국주의의 하위구조로 밀려나면서 마술은 서커스공연단과 함께 서양의 기법에 물든 채 대중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스냅>의 마술 또한 이런저런 맥락으로 서구문화의 영향권 속에 들어와 있다. 지금 한국 마술의 대부분이 그러하겠지만 최근 들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마술들의 복원작업이 공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냅>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다. 요정을 통한 에피소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도술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전우치전'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진다. 21세기 문화경쟁의 구도 속에서 '전우치전'의 이야기가 의적소설로 탄생되고 회자되듯이 <스냅>도 서구의 문화그늘 속에서 밀려난 고유한 전통마술을 다듬고 보듬어 세계시장에 선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앞선다. 트릭스터가 도깨비가 되어 권선징악을 관장하고 홍길동이 동서남북으로 환술을 펼치며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활약을 재미있게 그려내어 한국마술의 역사상 최초로 의미있고 진정한 사회적 마술이 탄생되어 에딘버러와 뉴욕의 영광이 한국마술의 정체성으로 다시 인식되기를 바란다.

부산문화회관

한국창작합창21 제15회 정기작품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시

일 시 | 6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국창작합창21 010-7600-4514



합창음악의 연구와 창작, 발표를 통해 대중과 함께 하는 창작합창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단된 한국창작합창21의 정기작품 발표회.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김강규가 이끄는 부산지휘합창단과 소프라노 김나정, 테너 조윤환(반주/이현주)이 작곡가 14인의 창작 합창곡 및 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람이 오는 길(최삼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이옥영), 오론대 호반에서(김중욱), 반달(이준영),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지요(김지훈), 기도의 노래(정혜란), 희망은 날개 달린 것(홍윤경), 세레나데(김수진), 내 안에(임욱), 열가지 재앙(김은진), 여심(윤소정), 가을산에 서면(조혜선), 바람이 불어(진소영), 모란이 피기까지는(권태우)

- 합창반주/백현주, 창합21 챔버오케스트라

김가영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6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가영 010-6398-9528



IF Ensemble 단원, Muto Flute Ensemble 단원으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김가영 독주회.

인제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에 재학중인 김가영은 글로벌 전국 음악콩쿠르 부문별 최우수상, Seoul Arts 콩쿠르

플루트 1위,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 2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2015 콘서트월드 태국 뷰티풀마인드 자선음악회에서 초청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쿨라우/서주와 론도 작품 98a  
후쿠시마 카즈오/플루트 솔로를 위한 Mei 고베르/마드리갈  
사무엘 지만/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 피아노/이은정

(사)예술아카데미나빌레라 제5회 정기연주회  
코로나19 극복 응원프로젝트

작곡가 8인8색

일 시 | 6월 9일 수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예술아카데미나빌레라 010-2543-0920



가슴으로 소통하는 음악을 추구하는 공감글로벌 국악단체인 (사)예술아카데미나빌레라 정기연주회. 지난 2017년 3월 창단 후 다양한 공연 콘텐츠 및 공연기획, 국악교육 프로그램, 사회공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사)예술아카데미나빌레라는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음악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잊혀진 과거의 기억들을 한국적 감성으로 재해석,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팬데믹 시대에 지친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이사람, 변지윤, 이다솜, 정혜원, 정하평, 강하은, 변재벽, 강성현 등 부산 출신 젊은 작곡가 8인의 창작 초연곡을 들려준다.

경성대학교 현악합주단 제3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663-4918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경성대학교 현악합주단 정기연주회.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홀스트와 그리그, 바버, 브리튼의 곡을 들려준다.

- 지휘/임병원
- 바이올린1/김명훈(악장), 임가현, 이정민, 김혜진, 임우정, 장승진, 제수민, 남윤정
- 바이올린2/최지수, 이윤지, 윤지희, 김하진, 하유진, 전시은
- 비올라/박민준, 김보경, 우정민, 김효경, 이택렬
- 첼로/이동열(외래교수), 윤성민(졸업생), 박아진, 신승엽
- 베이스/이유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일 시 | 6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궁중에서 연주되던 전통음악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특히 이번 무대는 품격있는 전통음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수일 악장의 집박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왕의 거동 때와 군대의 행진, 개신 때 연주되었던 취타풍류 5곡(취타-절화-일승월향-금전악-군악)이 연주되며, 2부에서는 우리의 전통성악곡인 가곡에서 노래없이 연주하던 기악곡인 '자진한입'을 들려준다.

- 집박/김수일(악장)

부산문화회관 2021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  
베르디 완전정복\_브레겐츠 오  
페라 페스티벌 '리골레토'

일 시 | 6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전석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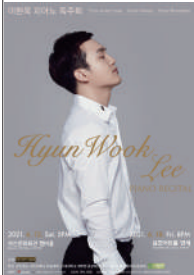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유명 오페라 극장과 페스티벌의 공연실황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6월 상영회에서는 '호수 위의 스펙터클'로 세계의 사랑을 받는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2019년 공연작 '리골레토'를 선보인다.

엔리케 마츨라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블라디미르 스토야노프(리골레토), 멜리사 프티(질다)가 열연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필립 슈츨의 개성 넘치는 연출로 공연 당시 전석 매진의 인기를 누린 바 있다.



## 이현욱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6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예원엔기획 010-3645-7953



열정과 깊이, 섬세함을 모두 갖춘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현욱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에꼴 노르말 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 과정 수료 및 실내악과정을 졸업하고 한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D.M.A)를 취득한 이현욱은 2013년 '임미정과 피아노 블러바드'의 창단 멤버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영산아트홀, 고양아람누리, 마포아트센터 등에서 초청연주를 가졌으며, 2015년 부다페스트 썸머 뮤직 페스티벌 초청 독주회, 헝가리 Duna Chamber Orchestra와의 협연 등 그동안 국내외 무대를 통해 솔리스트와 앙상블 연주자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무소르크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비롯해 하이든, 드뷔시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 앙상블의 신세계

일 시 | 6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피앙세 010-4566-9304



피아니스트 송대현, 박다은, 변소연, 이지민, 강수민, 김은지 등 동대학교 동문들로 결성된 피아노 앙상블 피앙세(fiancée)의 첫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보르딘, 스메타나, 브루벡, 루토슬라브스키, 구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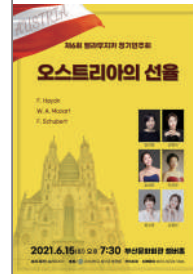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듀오를 비롯해 8hands, 12hands 등 다양한 연주를 통해 피아노 앙상블이 선사하는 풍성한 화음과 울림을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특히 작곡가 김수아의 '두꺼비 변주곡'을 부산 초연으로 만날 수 있다.

- 연주/김은지, 변소연, 박다은, 송대현, 이지민, 강수민

## 제6회 벨라무지카 정기연주회 오스트리아의 선율

일 시 | 6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벨라무지카 010-5520-8728



고신대학교 석사 및 유학파 출신 피아니스트들로 창단한 벨라무지카 정기연주회.

지난 2014년 3월 창단한 벨라무지카는 창단 그 해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주제와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연주회를

가져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선율'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관객들과 함께 오스트리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의 음악을 통해 당시 유럽의 예술과 문화, 사상의 중심지였던 오스트리아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관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 연주/김미영, 강현아, 조성희, 이은진, 최선경, 김효빈

##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제58회 정기연주회 영원한 보헤미안 Gustav Mahler

일 시 | 6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부산독일가곡연구회 010-8455-2383



음악의 본고장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부산의 성악가들이 중심이 되어 창단한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지난 1987년 창단 후 매년 2회 이상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통해 독일 예술가곡을 연구,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성악연구단체인 부산독일가곡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말러 서거 110주년을 기념해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다간 영원한 보헤미안 말러의 주옥같은 가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최훈녀, 장은영, 윤선기, 박나래, 김가은
- 바리톤/김대수, 김중화
- 피아노/임효진, 박소미, 정경아, 박지혜, 강우용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강좌 전원경의 아트살롱(그림콘서트) :비엔나에서 클림트를 만나다

일 시 |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1: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강연(Lecture)과 공연(Concert)이 결합된 렉처 콘서트로, 미술과 음악을 동시에 감상하면서 인문학적 해설로 예술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되는 '전원경의 아트살롱(그림콘서트)'.

'비엔나에서 클림트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도시와 미술작품, 그리고 음악가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예술'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며, 황금빛 화가 클림트의 미술작품 감상과 함께 베토벤, 슈베르트의 곡을 감상할 수 있다.

- 피아노/김민정 • 바이올린/신효은
- 테너/최원갑 • 반주/이승윤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6회 정기연주회 비제의 교향곡 제1번

일 시 | 6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비제의 유일한 교향곡인 '교향곡 제1번'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6회 정기연주회.

탄탄한 경력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고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해석과 놀라움을 선사한 노련함'으로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윤수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과 비제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생상스/피아노협주곡 제2번  
 비제/교향곡 제1번

- 지휘/이민형 • 피아노/이윤수

## 피아니스트 정고은 귀국 독주회

일 시 | 6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정고은 010-7566-1212



‘굉장히 신선하고 통찰력 있는 해석으로 청중과 소통하는 연주자’로 평가받는 피아니스트 정고은 귀국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석사과정을 거쳐 미국 노스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Music Scholarship을 수여 받으며 피아노연주 전공과 반주 부전공으로 박사학위(D.M.A.)를 취득한 정고은은 201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리스트 국제콩쿠르 2위를 비롯해 UNT 협주곡 콩쿠르 우승, 2019년 미국 파데레프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고 같은 해 뉴욕 골든클래식 뮤직어워드 우승자로 카네기홀에서 데뷔했다. 올해 귀국한 정고은은 이번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청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 2021 에일리 콘서트 Show Tok

일 시 | 6월 19일 토요일 오후 2:00, 7: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인 4매에 한해 VIP석 10%, R석·S석 20% 할인)  
 문 의 | ㈜WSM 1566-5490



‘믿고 듣는 가수’, ‘대한민국 대표 여성 싱어’로 자리매김한 가수 에일리 콘서트. 데뷔 전 유튜브에 올린 자신의 팝송 Cover 영상이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1000만 뷰의 소녀’로 불리며 인기를 끌은 에일리는 2012년 2월 9일 ‘Heaven’으로 정식 데뷔한 후 화려한 이력과 뛰어난 가창력, 감각적인 랩 실력까지 겸비한 실력파로 발표하는 음원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Show Tok’라는 부제로, 토크와 노래가 있는 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에일리의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 2021 NEW 아티스트챌린지 with KNN방송교향악단

일 시 | 6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KNN방송교향악단이 차세대 재능있는 음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NEW 아티스트챌린지 2021년 무대. 지휘자 박진이 지휘하고 KNN방송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수한 실력을 갖춘, 다양한 악기와 연령대의 협연자들을 한 무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 프로그램

- 칼로/스페인 교향곡 1악장
- 하이든/첼로협주곡 제2번 1악장
- 생상/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1악장
-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3번 1악장 등
- 바이올린/김소희, 박서현, 이지나
- 첼로/박성지
- 피아노/유지은, 이경원, 정하은
- 소프라노/김지우

## 트리오 피아체 연주회

일 시 | 6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순수한 음악에의 열정과 풍부한 음악적 기량으로 관객들에게 피아노 트리오의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자 창단한 트리오 피아체의 무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부산 콘서트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경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프라임필 객원수석, 조이 오브스트링스 첼로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정윤혜로 구성된 트리오 피아체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학구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연주로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제2번 '사콘느' BWV 1004  
 포레/엘레지 작품 24  
 라흐마니노프/악흥의 순간 작품 16  
 드보르작/피아노트리오 제4번 마단조 작품 90

## 무지카비바 앙상블 제31회 정기연주회 열정과 낭만사이 I

일 시 | 6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무지카비바 앙상블 010-3600-8397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탱고음악을 현악앙상블로 만날 수 있는 무지카비바 앙상블 제31회 정기연주회. 1998년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결성된 후 파워풀 하면서도 따뜻하고 호소력 있는 연주로 주목받은 무지카비바 앙상블은 안정된 연주력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졸라의 격정적이면서도 우아한 탱고음악을 비롯해 부산에서 활동중인 작곡가 김중완의 창작곡, 영국 웨일즈 출신의 작곡가 칼 젠킨스의 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음악 감상의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 음악감독, 리더/박경희
- 해설/전명희 • 작곡. 반도네온/김중완

## 부산대학교 교수임용기념 바리톤 이광근 초청독창회

일 시 | 6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오다 지난 2019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바리톤 이광근 초청독창회. 연세대학교를 수석졸업하고 이태리 베르디 국립 음악원에서 석사, 독일 마인츠 음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광근은 그동안 일본 교토, 이태리 부세토, 스페인 바르셀로나, 노르웨이 오슬로 등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2006년 독일 올름류크 장을 시작으로 50여 편 오페라에 주역가수로 출연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이름을 알렸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 '마태수난곡', 바그너 '운명의 힘' 등 주요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바리톤 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 피아노/이영민 • 테너/김충희



## 부산시립합창단 제182회 정기연주회 위로의 메세지

일 시 | 6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대규모 합창음악회, 부산시립합창단 '위로의 메세지'.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그리고 바리톤 고성현이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평화로 나아가자는 마음을 담아 레너드 번스타인의 '치체스터 시(Chichester Psalm)', 윌리엄 월튼의 '벨사살의 향연(Belshazzar's Feast)' 등 두 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 협연을 맡은 세계 최정상 바리톤 고성현은 그동안 벨칸토 발성의 교과서로 수많은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해오고 있다.

## 창단 10주년 후 브라스 콰이어 제9회 정기 연주회

일 시 | 6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후 브라스 콰이어 010-8733-7438



지난 2011년 창단 후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후 브라스 콰이어의 정기 연주회. 진지한 음악정신을 바탕으로 부산, 경남지역의 우수한 금관악기 연주자들로 창단한 후 브라스 콰이어는 이듬해인 201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 교육 프로그램 연주,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신선한 레퍼토리와 아름다운 하모니로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 단체명인 '후 브라스 콰이어'는 입으로 불 때 나는 '후' 소리와 금관악기를 뜻하는 '브라스'를 합쳐 만든 이름이다.

- 지휘/김기울 • 해설/김윤선
- 혼/이석준, 강민주, 박지용, 김영민
- 튜바/박재린

## O 트리오 창단연주회

일 시 | 6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박민선 010-5516-8231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박민선,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 첼리스트 김새로미로 구성된 O 트리오의 창단 무대.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단원으로 만나 다양한 앙상블음악을 펼쳐보고자 뜻을 모은 O 트리오는 이번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첫 곡으로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 구성의 베토벤 트리오 '가센하우어'를 클라리넷 대신 바이올린 구성으로 들려주며, 이어서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황여진과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사중주 K.478를, 마지막 무대로 멘델스존 트리오 제1번을 연주한다.

- 비올라/황여진(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2021년 부산현대음악앙상블 기획연주회 6인의 창작 실내악의 밤II

일 시 | 6월 27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현대음악앙상블 010-4691-4994



부산지역의 현대음악의 활성화와 수준 높은 연주를 목표로 지난 2008년 작곡가 이규봉을 주축으로 창단한 부산현대음악앙상블의 무대. 창단 이후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음악 장르를 통해 관객과 교감하며 지역의 전문연주단체로 자리매김해온 부산현대음악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6인의 작곡가 황선영, 임지훈, 이승민, 육수근, 김범기, 이규봉의 창작곡을 들려줌으로써 다양한 음악적 어법을 통해 현대 시대의 예술을 표현하고 대중과 소통한다.

- 작곡/황선영, 임지훈, 이승민, 육수근, 김범기, 이규봉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연주회 매그넘 인 파리

일 시 | 6월 28일(월)-10월 10일(일) 전시설  
입장료 | 성인(20세 이상) 1만5천원,  
청소년(14세~19세) 1만3천원  
어린이(3세~13세) 1만원  
문 의 |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070-779-8990  
www.magnuminparis.com



세계문화수도라 불리는 파리의 다양한 모습을 조망해보는 특별한 사진전 '매그넘 인 파리'. 로버트 카파, 마크 리부, 엘리엇 어윗 등 20세기 사진의 신화로 불리는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의 소속 작가 39명, 작품 346여 점(작품 224점, 8개의 영상으로 구성된 122점의 사진)을 통해 193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파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기간 동안에는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도 열린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입장 마감 오후 5:00)

## 이은옥 바이올린 리사이틀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시리즈 III

일 시 | 6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크레아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악장, 앙상블 디 마레, 센토 챔버소사이어티 리더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옥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도르트문트음대를 최우수 졸업한 이은옥은 그동안 오케스트라 주자이자 솔리스트, 앙상블 단원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면서 탁월한 곡 해석과 출중한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은옥은 현재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겸임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연주회 세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성민주와 함께 소나타 제19번, 제23번, 제24번, 제26번 등 총 4곡을 들려준다.

### 김지운 피리독주회 세계의 유산

일 시 | 6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문화예술기획 소리 숲 744-5716



한국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피리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지운 피리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피리연주자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지운

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2015년 한국평론가협회 심사위원 선정 특별상을 수상하고 현재 음악칼럼니스트와 방송인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금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음악과 문화 종목을 새롭게 재해석, 피리와 서양악기를 바탕으로 작곡된 창작곡을 초연으로 들려준다.

- 작곡/백현주, 황선영, 노재봉
- 연주/김미진(판소리), 김영립(하프), 이진성(피아노), 유지훈(클라리넷)

### 부산시립극단 제70회 정기공연 벚꽃동산

일 시 | 7월 1일(목)-3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러시아의 극작가 체홉의 4대 장막극 중 하나이자 마지막 작품인 '벚꽃동산'으로 관객과 만나는 부산시립극단 제70회 정기공연. 지난해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올해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귀족과 농노로 구분된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 가치가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러시아 말기를 배경으로, 몰락해가는 귀족가문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슬픔을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연극제에서 수차례 연출상을 수상하며 부산 연극의 대표 연출로 자리매김한 연출가 강성우가 부산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춘다.

- 작/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 연출/강성우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I

일 시 | 7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두 번째 무대. 'A Midsummer Night's Chamber Music'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과 재즈, 탱고가 빛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여름밤을 수놓는다.

#### 프로그램

코플랜드/조용한 도시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중 '1900년 선술집', '1930년 카페', '1960년 나이트클럽'  
 에릭 에바즈/베이스 트럼본을 위한 협주곡  
 피아졸라/망각(Oblivion), 리베르탱고, 신비한 푸가 (Fuga y Misterio)

### 부산시민회관

#### 연극 올모스트 메인

일 시 | 6월 1일(화)-6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수·목요일 오후 4:00,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1:00, 5:00  
**소극장**  
 입장료 |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A석 3만3천원(만 13세 이상 관람)  
 문 의 | 극단소년 0507-1379-1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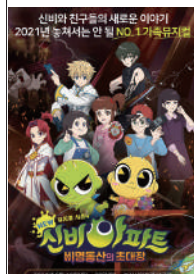


다양한 의미를 담은 사랑을 소재로 9가지 에피소드를 엮은 옴니버스 형식의 힐링 연극 '올모스트 메인' 부산공연. '올모스트 메인'은 지난 2004년 미국에서 초연된 후 현재까지 20개국 이상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

인 사랑을 받고 있다. 미국 북쪽의 메인 주에서도 동쪽 끝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이자 '거의(almost) 세상의 끝에 자리잡힌 올모스트를 배경으로 아홉 커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마법같은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우리에게는 블랙비 멤버 피오로 잘 알려진 표지훈, 이한솔, 최현성, 이충호, 김기주 등이 출연한다.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NEW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비명동산의 초대장

일 시 | 6월 19일 토요일 (토) 오전 11시, 오후 2:00, 4:30, 2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대극장**  
 입장료 | 1층석 6만원, 2층석 5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공간인 학교와 집을 배경으로 귀신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국내 최초의 호러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비아파트'를 어린이 뮤지컬로 제작한 'NEW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네 번째 무대.

공포의 비명동산을 배경으로 더 강력해진 캐릭터와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번 무대는 애니메이션과 결합된 화려한 홀로그램 효과와 더불어 신나는 음악, 시원한 액션까지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생생한 무대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 부산시민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피노키오'

일 시 | 6월 30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15세 이상 관람가, 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민회관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련하는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기획무대 '배시시 명품극장'. 예술의전당 공연실황을 생생한 고화질의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6월에는 50년 전통의 일본 인형극단 무수비좌

의 정통인형극 '피노키오'를 선보인다. 특히 3명이 하나의 인형을 조정하는 분라쿠 방식으로 섬세한 동작 연기와 풍부한 감정표현이 돋보이는 이번 작품은 피노키오의 여정에 따라 마리오네트, 판자 인형, 반가면 등 다양한 형식의 인형이 등장하고 화려한 서커스가 펼쳐지는 등 신나는 노래와 춤, 인형극 속의 인형극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 제5회 바리톤 최대우 독창회

일 시 | 6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최대우 010-2869-6780



울산로얄예술단 예술감독이자 울산시립합창단 단원, 효원 성악회, 효원 칸타떼, 세계음악연구회, 부산남성성악가양상블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최대우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최대우는 부산CBS 성악콩쿠르 금상, 고태국 성악콩쿠르 3위에 입상한 바 있으며, 그동안 4차례의 독주회를 비롯 제1회 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 후원 이탈리아 도시 순회연주, 로마 마르첼로 극장 연주 등 다수 무대와 수십 편의 오페라 주역으로 꾸준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헨델과 도나우디, 베르디, 윤학준 등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우리민요로 관객과 만난다.

리아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최대우는 부산CBS 성악콩쿠르 금상, 고태국 성악콩쿠르 3위에 입상한 바 있으며, 그동안 4차례의 독주회를 비롯 제1회 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 후원 이탈리아 도시 순회연주, 로마 마르첼로 극장 연주 등 다수 무대와 수십 편의 오페라 주역으로 꾸준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헨델과 도나우디, 베르디, 윤학준 등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우리민요로 관객과 만난다.

- 해설/이진호
- 소프라노/박소영 • 피아노/안준희

### 영도문화예술회관 어울림 상설Series #17 국악그룹 이별의 가무악

일 시 | 6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우리음악의 신명과 흥을 가무악 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창작국악그룹 이별의 무대. 박소현(가야금), 김의진(대금, 소금), 김연준(피아노), 박세미(판소리), 이다영(무용), 김현수(드럼) 등 소리꾼, 연주자, 무용수들로 구성된 이별은 그동안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전통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놓치지 않는 트렌디한 작품들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도 전통음악과 세계의 무곡, 판소리와 현대음악을 균형있게 조화한 창작곡을 중심으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별만의 음악을 들려준다.

성된 이별은 그동안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전통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놓치지 않는 트렌디한 작품들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도 전통음악과 세계의 무곡, 판소리와 현대음악을 균형있게 조화한 창작곡을 중심으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별만의 음악을 들려준다.

### 국립부산국악원 명품 레퍼토리 토요일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나는 가무악의 무대 '토요일 신명' 5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승무/살풀이춤, 판소리, 대금·가야금중주 '대바람소리'(이상규 곡), 버꾸춤/소고춤, 설장구놀이

12일 프로그램 현악취타, 작법무, 가사, 산조춤, 창작성악 '제비노정기'(황호준 곡), 고상허튼춤/수영아류 말뚝이춤  
 19일 프로그램 대금독주 '청성곡', 아박무/박접무, 판소리, 진쇠춤, 거문고3중주 '바람의 길'(박경훈 곡), 율리 판국  
 26일 프로그램 성악단 정기공연

###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 수요공감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홀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년 전통예술인에게 공연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해온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 '수요공감'.

2일 민속악회 興 고산유수 (高山流水) [신진예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들로 결성된 민속악회 흥의 무대.

- 프로그램  
 대풍류, 육자배기, 산조합주
- 사회, 거문고/강태훈
  - 대금/고수연 • 피리/오혜림
  - 가야금/박예정 • 아쟁/김소연
  - 해금/이예희
  - 타악/김중훈, 김태준

9일 김미자무용단 '인의예지(仁義禮智)'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로서 있는 춤꾼 김미자의 무대. 정선 이애주 선생을 사사한 김미자는 현재 한국전통총회 사무국장, YeART CENTER 대표로 있다.

프로그램  
 예의춤(이애주류), 태평무(한영숙류), 살풀이(한성준류), 살풀이(한영숙류), 한량무(한성준류), 승무(이애주류)

16일 최윤혜 다섯 번째 발표회 '풍류(風流)-버들 닢 흐드리지듯' 현재 신라만파식적보존회 회원, 태오름민족가무악단 대구경북지회장으로 있는 대금주자 최윤혜의 무대.

영남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한 최윤혜는 제1회 가람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 프로그램  
 단소독주 '현천수', 춘앵전, 승무(한영숙류), 옛가위춤, 대금·아쟁 허튼가락 병주, 납도잡가

23일 김순주의 춤 '푸리' 대구시립국악단 한국무용 수석단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이수자, 지방무형문화재 제9호 살풀이춤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춤꾼 김순주의 무대.

프로그램  
 춘앵전, 달구벌입춤(박지홍제 최희선류), 대금산조, 설장구춤, 진도복춤, 선(扇)살풀이춤

30일 박세연 가야금독주회 '본연 IV-한성기와 김죽파'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단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이수자, 아시아쥬교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주자 박세연의 무대.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석, 박사과정을 졸업한 박세연은 2020 KBS국악대상 연주 현악상, 제26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한성기 가야금산조, 김운선 가야금산조, 김죽파 전승 민간풍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 6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로, 클래식에서부터 성악, 국악 등 다채로운 무대를 만날 수 있다.



**2일(제741회) 음하량-정악 이야기 '풍류방의 성악곡'**  
 가사, 시조를 비롯해 가곡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정가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풍류방의 성악곡'.  
**프로그램**  
 가사 '백구사', 시조 '태산아', 가곡 '다스름', '이수대업', '우락', '반엽', '평릉', '편수대업'

**9일(제742회) 센트렘버스사이아티 '보헤미안 랩소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악장 이은옥을 리더로 음악을 통한 연주자와 청중의 교감을 목표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센트렘버스사이아티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모국인 체코의 보헤미안적인 선율과 정서를 작품 속에 담아온 드보르작의 현악4중주 '아메리칸'과 피아노 5중주 작품 81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이은옥, 서은아, 오근영, 박은경
- 비올라/이성호, 손주연
- 첼로/서성은, 김근혜
- 피아노/이윤지



**16일(제743회) 디 첼리스트 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리더 정준수를 주축으로 우리나, 김무늬, 김기량, 박예리나, 문준수, 성아란, 이강수로 결성된 디 첼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현재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디 첼리스트 앙상블은 그동안 테마가 있는 음악을 중심으로 친밀감을 선사하는 연주로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프로그램**  
 요한 스트라우스/박주 바흐/G선상의 아리아  
 비발디/두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사단조  
 오펜바흐/저녁의 하모니 등

**23일(제744회) 듀오 벤 두 번째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이은정, 플루티스트 오신정으로 결성된 듀오 벤(Duo Ven)의 무대.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오보이스트 고관수, 호르



니스트 최영희와 함께 요한 요하킴 칸츠의 '플루트, 오보에, 바소 콘티누어를 위한 소나타 단단조'를 비롯해 도플러, 아놀드, 훔멜 등 관악기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요한 요하킴 칸츠/플루트, 오보에, 바소 콘티누어를 위한 소나타 단단조  
 도플러/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Souvenir du rigi idylle  
 작품 34  
 훔멜/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등



**30일(745회) 소프라노 이진영 독창회**  
 소프라노 이진영의 아름다운 고음역대 선율과 피아노 4중주와의 만남으로, 바흐의 '커피 칸타타'와 모차르트의 모테트 '환호하라 기뻐하라' 등 성악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다채로운 곡

- 을 들려준다.
- 피아노/전병하 • 바이올린/김성빈
  - 비올라/유정주 • 첼로/김해지

## 2021 두레라움 토요일외콘서트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5:00(26일 공연없음)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지난 2013년 첫 발을 디딘 후 영화의전당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두레라움 토요일외콘서트 2021년 무대.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휘자 정두환이 지휘하는 두레라움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6월에는 반도네온 연주자 김종완을 주축으로 피아노, 비올라로 구성된 월드뮤직 탱고팀 친친탱고와 부산 청년 퓨전국악팀 국악그룹 뜨락이 무대에 선다.

**프로그램**  
 5일 두레라움 윈드오케스트라(지휘/정두환)  
 12일 친친탱고, 국악그룹 뜨락(영화의전당×금정문화재단)  
 19일 초야밴드

## 제28회 짜장콘서트

일 시 | 6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로비**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선착순 20명)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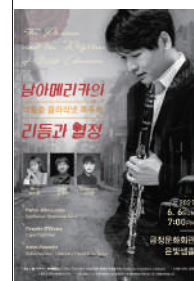
현재 BS마린캠퍼머오퍼 대표, 남성성악앙상블 '퍼스트 클래스' 리더로 활동중인 바리톤 강경원(초청 솔리스트),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유학 준비중인 소프라노 배구린(청년음악가)이 함께하는 제 28회 짜장콘서트.



이진이의 진행, 앙상블 '프로뮤지카'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클래식 명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창작가곡 '꽃 몸살(동길산 시, 백승태 곡)'을 소개하며,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를 노래에 얹힌 사연과 함께 들려주는 '톡톡(Talk Talk): 나의 노래방 1번' 코너에서는 가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을 들려준다.

## 백동훈 클라리넷 독주회 남아메리카의 리듬과 열정

일 시 | 6월 6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할인)  
 문 의 | 백동훈 010-9990-8729



부산예고 재학 중 러시아로 유학, 노보시베르스크 특별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클라리넷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 파리 국립음악원, 말레중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클라리넷 지도자 Yehuda Gilad의 지도로 대학원을 졸업한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 독주회.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남아메리카 작곡가들의 곡으로 꾸민 이번 무대에서는 브라질의 에이토르 빌라로보스, 쿠바의 파퀴토 디 리베라, 아르헨티나의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을 통해 남아메리카 특유의 강렬한 리듬과 열정을 들려준다.

- 피아노/박지혜 • 클래식기타/김경태
- 반도네온/김종완



## 4인 듀오 음악회

일 시 | 6월 8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박희정 010-5769-3346



피아니스트 강지영, 장근미, 박희정, 박선아가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음악회. 강지영은 세종대학교 및 동대학원, 독일 카셀국립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장근미는 신라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대학원, 이탈리아 로마 국립음악원 산타 체칠리아를 졸업하고 부산관현악단, 뉴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갖는 등 다수 무대에 출연했다. 박희정은 계명대학교 대학원, 오스트리아 Salzburg Mozarteum Summer Academy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수 듀오 및 솔로 무대를 가져왔다. 박선아는 러시아 마그니토고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에서 연주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플랑크, 슈베르트, 생상스, 차이콥스키 곡을 피아노 듀오연주로 들려준다.

## 카메라타 부산 제9회 정기연주회 20세기의 명작을 찾아서

일 시 | 6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카메라타 부산 010-7535-5369



지난 2012년 지휘자 윤상운을 중심으로 부산의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 창단한 카메라타 부산 정기연주회.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작품들 중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고 창작음악을 알리는데

도 힘써온 카메라타 부산은 실내교향악곡뿐 아니라 성악곡, 오페라 등에 동참하며 연주 장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대표적인 작곡가로, 폴란드의 작곡가 그라지나 바체비치와 브라질 작곡가 빌라 로보스의 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바체비치/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그리그/2개의 노르웨이 선율 작품 63  
빌라 로보스/브라질풍의 바흐 제9번 등

##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0회 협주곡의 밤

일 시 | 6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4408-1347



현재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고려아오페라단 지휘자로 있는 오창록이 이끄는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지난 2007년 7월, 지역의 전문연주자들로 창단된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창단 후 다

양한 무대를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와 수준높은 연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차세대 연주자를 꿈꾸는 10명의 음악전공자들이 출연,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기량을 선보인다.

- 지휘/오창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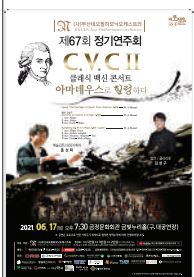
## (사)부산네오파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67회 정기연주회 C.V.C.II 아마데우스로 힐링하다

일 시 | 6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사)부산네오파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연간 40여회 이상의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온 (사)부산네오파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고 클라리네티스트 김성구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클래식 백신 콘서트(C.V.C.) 두 번째 무대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지친 시민들에게 모차르트 음악으로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협연자 김성구는 부산 출신의 연주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프랑스 베르사이유(CNR) 최고연주자과정을 만장일치로 조기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제79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전쟁과 사랑 in 오페라

일 시 | 6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온 제79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성악가협회 회원들이 출연, '전쟁과 사랑'이라는 테마로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총감독/홍희철
- 연출/이호석
- 소프라노/강수진, 김유진, 이지은, 장은영
- 메조소프라노/박소연
- 테너/김지호, 양승엽, 임성규
- 바리톤/안세범, 유용준, 윤풍원
- 베이스/김정대, 박상진
- 피아노/김경미, 김주리

##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감상 사업 2021 부산아리랑

일 시 | 6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19일-20일 토요일 오후 2:00, 5:00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busan.or.kr



지역의 대표예술단체인 서지영무용단과 양상블로운의 협업으로 재창작된 이번 무대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을 소재로 부산 지역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가무약곡이다.

서지영무용단의 서지영 대표가 예술·무용감독을 맡고 양상블로운의 김은경 대표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이번 무대에서는 소리꾼 김지혜, 춤꾼 이인태 등 젊은 예술가들이 주인공으로 출연, 소리와 춤으로 극을 이끌며, 부산국악협회 김인숙 회장과 부산무용협회 김강용 회장이 특별출연, 지역 전통예술의 깊이를 선보인다.

## 성민주 피아노 클래스 콘서트

일 시 | 6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성민주 010-3815-3190



그동안 연주자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온 피아니스트 성민주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성민주 피아노 클래스 콘서트.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를 실기수석으로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연주 석사와 최고연주자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성민주는 2010년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150여회가 넘는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으며 2013년에는 부산연주인으로 선정되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제자 김선영, 김예린, 김하늘, 방미진, 서민지, 손나빈, 윤다정, 조이나, 조해원이 출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 권준 피아노 독주회 슈베르트 프로젝트 시리즈-Concert 2

일 시 | 6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권준 010-4658-7963



고신대학교 교수이자 부산 피아노 trio 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권준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대 및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모짜르테움을 최우수 졸업하고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연주학 박사(DMA)를 취득한 권준은 그동안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독주회 및 실내악연주를 가져왔다. 2010년 귀국 후 매년 독주회를 진행해오며 학구적인 피아니스트로서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권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베토벤 기획시리즈를 통해 베토벤 피아노 음악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슈베르트 프로젝트 시리즈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4개의 즉흥곡을 비롯해 보리수, 피아노소나타 제19번을 들려준다.

## 제8회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부부음악회 가톨릭 성가의 밤

일 시 | 6월 26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부부가 매년 마련하는 부부음악회 2021년 무대. 신정순은 현재 서울바로크와 현대가곡연구회 회원, 부산교구 남산성당 로사리오성가대 지휘자로, 고봉수는 M&M 성악연구회 회장, 부산 우리가곡 부르기 회장, 해운대 노노합창단, 장산 청춘합창단 지휘자, 부산교구 거제동성당 글로리아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가톨릭성가로 관객들에게 코로나 극복과 희망의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

- 오르간/이효진 • 영상/고승현

## 제9회 선샤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선샤인 오케스트라 010-5660-3919



지난 2015년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창단한 선샤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선샤인 오케스트라는 창단 이듬해인 2016년 6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매년 2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수요행복음악회', 학생연합오케스트라 합동공연,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사)빛을나누는사람들 시니어 오케스트라 단원,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리더, 클라리넷 앙상블 '클라속으로'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원준연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플루티스트 김인호, 실로폰주자 원윤이의 협연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대니 구의 커넥션!

일 시 |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유튜브 채널 '대니랜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초청으로 마련되는 브런치 콘서트 6월 무대. 대니 구는 클래식과 재즈, 영화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바이올리니스트로, 훈훈한 외모와 엉뚱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문채원과 함께 음악평론가 조희창의 해설로 음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대니 구의 '무한긍정 에너지'를 만날 수 있다.

- 해설/조희창 • 피아노/문채원

## 영도문화예술회관 명작공연시리즈 5 문화가 있는 날 세빌리아의 이발사

일 시 | 7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정영홀  
 입장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마련한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갈라무대. 오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희극극으로 사랑받는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와 유쾌한 멜로디, 로시니 특유의 희극적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이지은(로지나), 테너 홍지형(알마비바 백작), 바리톤 정승화(피가로), 베이스 권영기(바르톨로), 베이스 박상진(바질리오) 등이 출연, '방금 들린 그 목소리', '나는 이 거리의 만능 일꾼' 등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 연출/정승화 • 음악코치/최승희
- 피아노/민종호 • 해설/선승일



연극

연극 오늘도 극한직업

일 시 | 3월 4일(목)-6월 6일(일)  
 평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사파리와 롤러코스터가 결합된 신개념 놀이기구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파리만 날리는 사파리익스프레스. 어느날 멸종위기의 나무늘보 수컷이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되면서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사파리의 암컷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사파리익스프레스에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에 승진을 꿈꾸는 구해호와 포상금으로 영화감독 꿈을 노리는 정대성, 동물들의 대모를 꿈꾸는 손희영, 그리고 갓 입사한 막내 온리원까지 각기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무늘보의 짝짓기 의지를 불태우는데... 과연 이들은 짝짓기를 무사히 성공시키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

• 작/박강록 • 연출/장세운

코믹극 택시안에서

일 시 | 4월 7일(수)-Open run  
 수-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화요일  
 공연 없음) **부산 해바라기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평일 공연 예매시 60%,  
 주말·공휴일 예매시 51% 할인)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요절복통, 좌충우돌 코믹연극 '택시안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 본 하영과 소희는 집으로 가는 택시안에서 운명 같은 만남으로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지 못하고 두 손을 놓게 된다. 사랑에 상처를 받은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너무나 늦게 사랑을 깨달은 하영은 소희를 잡으러 공항으로 향한다. 마지막 인생이 걸린 택시에 탑승한 하영과 그런 그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는 택시기사 민수. 과연, 하영은 세 시간만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까?

코믹연극 검정고무신

일 시 | 5월 5일(수)-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용천지탈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예매시 1만3천원)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더욱 탄탄해진 스토리로 다시 찾아온 버라이어티 코믹 휴먼 드라마 '검정고무신'. 지난 1960~70년대 힘들었던 시대,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검정고무신'은 가난했던 그때 그 시절 한 가족사를 통해 현재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어렵게 살아가는 삼남매, 진학도 포기한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첫째 영일, 학교 가는데 세상에서 제일 싫은 철부지 말쟁쟁이 둘째 영삼,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살림만 하는게 불만인 똑순이 셋째 영실, 늘 춤고 배고픈 것이 일신인 영일네 가족의 고군분투기가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뮤지컬 위키드

일 시 | 5월 20일(목)-6월 2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2:00, 7:00(월요일 공연없음)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문 의 | 드림씨어터 1833-3755



브로드웨이의 고전 '오즈의 마법사'를 유쾌하게 뒤집은 블록버스터 뮤지컬 '위키드' 부산 초연무대. 지난 2003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18년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위키드'는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았던 오즈의 두 마녀 엘파바와 글린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선과 악, 성장 용기에 관한 매력적인 이야기로, 그동안 전 세계 16개국 100여개 도시에서 6천만명이 관람한 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히트작이다. 특히 단 한 번의 압전도 없는 54번의 매끄러운 장면 전환과 연기를 뿜어내는 거대한 타임 드래곤 등의 화려한 무대 메커니즘,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관객들을 마음을 사로잡는다.

극단 아센 제53회 정기공연 유리동물원

일 시 | 5월 28일(금)-6월 5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40석 한정 예약제, 예약 필수)  
 문 의 | 극단 아센 504-2544



2021년도 부산문화재단 우수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극단 아센 '유리동물원'.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배경으로, 화려한 과거 속에 갇혀사는 엄마 아만다와 선천적인 장애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딸 로라, 꿈과 현실의 무게감에서 괴로워하는 아들 톰을 통해 한집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각자의 환상과 이상향을 강요하며 서로에게 생채기 내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담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려낸다.

- 원작/테네시 윌리엄스
- 번역/장세중
- 재구성,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송준승, 양민희, 박선

연극 '흥타' 10주년 기념공연

일 시 | 6월 3일(목)-8월 2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만 13세이상 관람가)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공포연극의 원조로 많은 사랑을 받은 연극 '흥타' 10주년 기념공연. 대학교 때부터 사랑과 우정을 이어온 동훈, 재용, 지은은 함께 등산을 갔다가 돌발적인 사고로 지은이 죽음을 맞는다. 8년 후 재용과 동훈은 지은이 사고사로 죽었던 그 산을 다시 찾게 되고, 등산 중에 재용이 부상을 입고 길까지 잃게 되면서 과거에 벌어졌던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이 결국 그들을 극한상황으로 몰아가는데... 연극 '흥타'는 눈을 감으면 소리가 무섭고 소리를 막으면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오감만족 공포스릴러로, 한순간도 눈을 땄을 수 없는 두 남자의 팽팽한 심리전이 극의 몰입도를 200% 올린다.

## 부두연극단 환도와 리스

일 시 | 6월 9일-11일 수-금요일 오후 7:30  
12일 토요일 오후 4:00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부두연극단 010-7450-3582



세계 고전 명작과 실험적이고 사회성 짙은 문제작들을 연출가 이성규의 독창적인 해석과 관점, 실험적인 스타일을 통해 무대에 올려온 부두연극단이 신인배우를 위해 마련한 무대 '환도와 리스'

'공황연극(panic theater)'의 창시자라 불리는 스페인 태생의 프랑스 극작가 이사 시인, 영화감독인 페르난도 아라발은 극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세계를 금기시되는 성과 폭력으로 대담하게 묘사하면서 인간 본성을 깊이 통찰케 하는 문제작들을 발표해왔다. 아라발의 대표작 '환도와 리스'는 소유와 헌신, 사랑과 증오, 멜로와 에로티시즘 등 어린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랑의 이중성을 그린 작품이다.

- 작/페르난도 아라발 • 번역/김미라
- 연출/이성규
- 출연/정아린, 김승완, 최민, 김정호, 이서영

## 연극 체인징 파트너

일 시 | 6월 10일(목)-8월 15일(일) 평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시대라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던 배우자와 정반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극 '체인징 파트너'.

커플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웨딩업체 주유와 커플매니저 김중매. 호기롭게 두 커플의 만남을 주선하지만 4명의 남녀가 비슷한 이름 때문에 맞선상대가 바뀌게 된다. 파트너가 바뀐 것도 모르고 맞선을 시작한 그들, 이번 맞선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맞선과 결혼이라는 소재를 코믹하게 그린 이번 무대는 관객과 웃고 떠드는 가운데 사랑과 결혼이라는 명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 2021 제18회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코믹 마살아츠 퍼포먼스 '점프'

일 시 | 6월 11일 금요일 오후 2:00, 7:30  
12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부산국제연극제 802-8003, www.bipaf.org



매년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2021 부산국제연극제. 지난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으로 비대면 온라인축제로 열렸던 부산국제연극제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온·오프라인이 함께하는 연극축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2021 부산국제연극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은 코믹 마살아츠 퍼포먼스 '점프'로, 동양무술을 중심으로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도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를 혼합하여 '년버벌 코믹 마살아츠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제시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영도문화예술회관 명작공연시리즈 4 3D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일 시 | 6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국내 최초 3D 라이선스 뮤지컬로 지난 2010년부터 전 세계에서 2,000여회 이상 공연된 바 있는 3D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루이스 캐롤의 원작 속 신비로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개발한 나인 홀로그램 시스템(3D 안경없이 3D를 구현)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표현으로 몰입감을 주고, 실제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공상의 세계를 3D영상으로 구현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번 무대는 루이스 캐롤의 원작 속 신비로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개발한 나인 홀로그램 시스템(3D 안경없이 3D를 구현)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표현으로 몰입감을 주고, 실제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공상의 세계를 3D영상으로 구현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2021 제18회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경남도립극단 '토지'

일 시 | 6월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부산국제연극제 802-8003, www.bipaf.org



지난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2021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토지'. 지난해 2월 박장렬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창단한 경남도립극단의 '토지'는 50년 동안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을 원작으로, 하동과 통영, 진주 등 경남 곳곳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담고 있다.

'토지'는 그동안 마당극과 영화, 드라마로 제작된 적은 있으나 연극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정겨운 사투리와 지역 전통의 춤과 민요를 조화롭게 담아내면서 원작의 감동을 생생히 재현해낸다.

- 작/김민경 • 연출/박장렬(예술감독)

## 무용

### 제17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국제안무가육성경연

일 시 | 6월 2일 수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문의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 www.bidf.kr



해양수도 부산의 6월을 아름답게 수놓을 춤의 향연 제17회 부산국제무용제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육성경연'.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AK21 국제안무가육성경연'은 무용계의 미래를 선도할 젊은 안무가들이 서로의 역량을 겨루는 안무 경연무대로, 예선을 통해 결선에 오른 에프씨티 댄스컴퍼니, 현대무용단 자유, 조군댄스, DAP Company 등 4개팀과 지난해 AK21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경희댄스시어터(박재현)가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



### 제17회 부산국제무용제 BIDF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갈라콘서트

일 시 | 6월 4일 금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문 의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 www.bidf.kr



‘춤의 꿈결, 꿈의 물결’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제 17회 부산국제무용제. 개막축하공연 갈라콘서트에서는 A Dance Project(Maro Russo Volpe)의 ‘BHOPAL 1984’, 국립발레단(송정빈)의 ‘해적 침실 파도’, 감남진 피지컬씨어터(감남진)의 ‘새’, 박상용무용단(박상용)의 ‘진도북놀이, 비클라(정영재)의 ‘1.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2 평화로운 백조를 위하여, 신은주무용단(신은주)의 ‘파란!’ 등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2021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시네마 뮤직 파라다이스 와이즈발레단 해설이 있는 발레

일 시 | 6월 30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발레 마스터가 직접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발레 이야기로 꾸며지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6월 무대. 발레의 역사부터 무대 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발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영화 ‘블랙스완’, ‘아이 엠 샘’에 등장했던 장면과 음악들을 선별해 와이즈발레단 무용수들이 갈라무대를 펼쳐보인다. 지난 2005년 창단한 와이즈발레단은 그동안 클래식발레에서부터 아트 콜라보레이션(Art Collaboration)까지 연간 100회가 넘는 다양한 무대를 관객과 만나왔으며, 2017년 제49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 2018년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해설, 예술감독/김길용

### 영화

### 제17회 부산국제무용제 BIDF Dance in Cinema

일 시 | 6월 3일(목)-5일(토)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일반 8천원, 청소년 7천원, 유료회원 6천원, 우대 5천원  
 문 의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 www.bidf.kr



부산국제무용제가 열리는 기간인 6월 3일부터 사흘간 (재)영화의전당과의 공동기획으로 마련되는 ‘BIDF Dance in Cinema’. 부산국제무용제가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영화 ‘댄싱 베토벤’, ‘그녀에게’, ‘스윙키즈’ 등 세 편의 무용영화(dance film)를 선정,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영상매체를 통한 새로운 무용감상의 길을 일반인들에게 제시한다.

### 영도문화예술회관 어울림 상설 Series #18 영도영화극장 어거스트 러쉬

일 시 | 6월 9일 수요일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사랑, 가족, 믿음 등 세상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영원불변의 키워드와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전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 ‘어거스트 러쉬’. 단 한번의 운명적 만남이었지만 서로를 잊지 못한 두 남녀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아이 ‘어거스트 러쉬’, 이 세 사람의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음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감동 스토리를 담아낸 영화로, 그래미 상에 빛나는 할리우드 최고의 작곡가 마크 맨시나가 음악 감독을 맡고, 영화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가 뮤직 컨설턴트로 참여, 감성을 자극하는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사한다.

### 영도문화예술회관 어울림 상설 Series #19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일 시 | 6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예술의전당 우수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만나는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SAC On Screen은 10대 이상의 카메라 앵글로 만들어내는 생동감 넘치는 고화질 영상으로 아티스트들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만날 수 있다.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은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공연예술단체로 발돋움한 ‘그루프 프로젝트’가 제작한 작품으로, 신기한 마술을 매개로 마임, 웨도우그래피, 미디어아트, 신체극 등을 동화적인 스토리텔링과 결합한 난버벌 퍼포먼스이다.

### 콘서트

### 싱어게인 TOP10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6월 5일 토요일 오후 2:00, 7:30  
 벅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문 의 | (주)밝은누리 1566-9621

### 2021 장윤정 라이브 콘서트

일 시 | 6월 19일 토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문 의 | (주)밝은누리 1566-9621

### SELECT SHOP

### ‘십센치 X 소란’ 콘서트

일 시 | 7월 3일 토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문 의 | (주)엠플러스 1544-3901

행사

### 6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화요일 오전 11:00,  
17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입장료 | 수강료 1만 5천원  
(소수 정원제, 문자·예약 필수)  
문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1월, 8일, 15일, 22일, 29일 윤산의 논어 아카데미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 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 수강료 무료

7일 예술가의 길을 택한 비틀즈(!)한 차원 높은 성공의 길

· 강사/이기녕(작곡가, 동시대 음악학과 교수)

14일(월) 에릭 로메르 감독의 여름:녹색광선 (1986), 여름이야기(1996), 遺作,로맨스(2007) 를 중심으로

· 강사/김영광(영화평론가)



17일 낭송 그리고 읽다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박성현 저, 문학수첩,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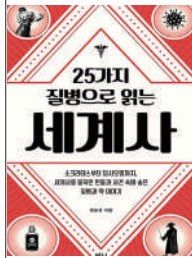
· 진행/김비주, 박노경, 이나열

※ 수강료 무료

19일 오전 10:00 부산을 걷다: 부산진성과 통신사의 출발지,

영가대를 찾아서 (※장소/법일역 1번 출구)

· 강사/우주호(국토&환경연구소 소장, 행정학 박사)



21일 25가지 질병으로 읽는 세계사:소크라테스부터 덩샤오핑까지

· 강사/정승규(약사, 의학 연구가)

28일 선불교, 음악으로 말한다:존 케이지의 침묵과 그 변주들

· 강사/정병언(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 제164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사랑 詩 주제-시 낭송회

일 시 | 6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화회  
010-6367-0149

· 특별출연/소프라노 권소라, 도용복 시인

### 2021 영화의전당 예술아카데미 정두환의 클래식 살롱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5:00(30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리허설룸

입장료 | 무료(선착순 예약, 참여율 향상을 위해 회비 있음)

문의 | 영화의전당 공연예술팀 780-6031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강연 및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살롱.

매주 수요일마다 공연예술 강의를 듣고 공연을 보고, 그에 대한 감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강좌로, 6월에는 '현악기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과 함께 30

일 해설이 있는 살롱콘서트가 펼쳐진다.

일정

2일 리허설룸 현악기 이야기 1

9일 리허설룸 현악기 이야기 2

16일 리허설룸 현악기 이야기 3

23일 리허설룸 현악기 이야기 4

30일 하늘연극장 해설이 있는 살롱 콘서트 III

### 김옥균의 힐링클래식명곡여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 3개월 15만원

문의 | 김옥균 010-6367-0149

롯데백화점문화센터 810-2351~2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공연실황 영상감상회.

주요 프로그램

비발디 사계 중 '여름', 레스피기 '로마의 분수',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 베토벤 '발트슈타인' 하차투리안 '스파르타쿠스' 모음곡, 비제 '카르멘 환상곡'

프랑크 바이올린소나타,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3번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하이라이트,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보케리니 첼로협주곡, 드보르작 '아메리칸' 등

### 제17회 부산국제무용제 춤의 꿈결, 꿈의 물결

일 시 | 6월 4일(금)-7일(월)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입장료 |

문의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 www.bidf.kr



해양수도 부산의 6월을 아름답게 수놓을 춤의 향연 '제17회 부산국제무용제'.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무용제로 개최됐던 부산국제무용제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자 온·오프라인이 함께하는 무

용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춤의 꿈결, 꿈의 물결'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부산국제무용제에서는 국내 무용단체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루마니아/헝가리, 이스라엘, 대만, 독일, 인도네시아, 중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13개국 52단체가 참여한다.

· 주요 일정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육성경연 [공식행사I]

6월 2일(수)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BIDF Dance in Cinema

6월 3일(목)-5일(토) 영화의전당 중극장

BIDF 시민모바일댄스

6월 3일(목)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BIDF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갈라콘서트 [공식행사II]

6월 4일(금)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BIDF 공식초청공연 [공식행사III] ※온라인공연

6월 4일(금)-7일(월) 오후 7:00 유튜브, 네이버

TV, BIDF 홈페이지(www.bidf.kr)

BIDF 시민단체 참여 무용경연

6월 5일(토) 낮 12:0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BIDF 열린춤무대

6월 6일(일) 오전 11:00, 오후 1:0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BIDF 폐막식 및 폐막축하무용영화 [공식행사IV]

6월 7일(월)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제3회 BIDF 코리아댄스 그랑프리

6월 12일(토)-13일(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6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 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6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현대 오페라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 프로그램

4일(금) 알반 베르크 '롤루'  
11일(금) 첼린스키 '난쟁이'  
18일(금) 코른골트 '헬리아네의 기적'  
25일(금) 토마스 라르허 '업총'

## 2021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 예술여행II

일 시 | 6월 5일(토)-6월 26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00(26일은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  
입장료 | 무료(사전 전화예약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 예술여행II. 서양 문화예술의 시작이라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문화예술의 찬란한 꽃을 피운 낭만시대까지의 음악·미술 등 작품과 시대별 예술가들에 대해 예술강사 김성민의 친근한 해설로 알아볼 수 있다.

### 일정

5일 오전 10:00 동백홀 북유럽 르네상스의 중심, 플랑드르  
12일 오전 10:00 동백홀 바로크시대 I  
19일 오전 10:00 동백홀 바로크시대 II  
26일 오전 10:30 절영홀 르네상스, 바로크시대 주제 섹터 콘서트

## 영도문화예술회관 꿈다락 예술감상교육 클래식 아는 척 하기

일 시 | 6월 12일(토)-7월 3일(토) 오전 9: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제4연습실  
입장료 | 무료(사전 전화예약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클래식 아는 척 하기'. 지역 초·중등 학생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감상을 통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자발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됐으며 악기, 작곡가, 무용, 클래식 감상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교육과 감상이 함께 진행된다.

### 일정

6월 12일 클래식 악기(목관악기)특징과 소리 알아보기  
6월 19일 시대별 클래식 음악가와 곡 감상하기  
6월 26일 무용기본동작과 세계의 무용곡 감상하기  
7월 3일 백스테이지 투어와 현악 앙상블 공연 관람  
• 교육대상/초등학생 3학년~중학생 및 학부모(기수별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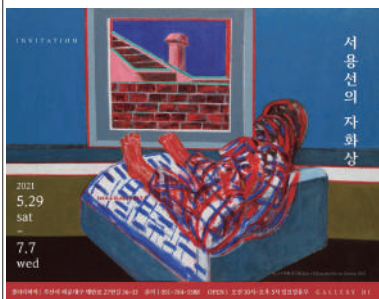
## 전시

###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기획전 네버랜드 사운드랜드-권병준 소리 산책

일 시 | 1월 29일(금)-8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갤러리 하이 초대전 서용선의 자화상

일 시 | 5월 29일(토)-7월 7일(수)  
갤러리 하이  
문 의 | 갤러리 하이 784-5588



###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조각, 풍경속으로

일 시 | 6월 20일(일)-7월 4일(일)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문 의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busan.or.kr



질어진 봄기운이 가득한 야외에서 지역 작가들의 조각품을 만날 수 있는 있는 야외조각전 '조각, 풍경속으로'. 특히 이번 전시는 부산조각가협회 문명탁 회장이 직접 큐레이터로 참가하며 작가 강이수, 신무경, 박은생, 변대용, 김태인, 한주용, 박순민, 김정민, 김성진, 허경준, 이경, 박성주, 유경혜 등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13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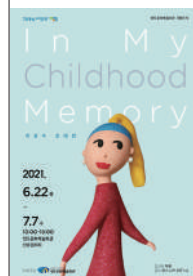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는 부산조각가협회 문명탁 회장이 직접 큐레이터로 참가하며 작가 강이수, 신무경, 박은생, 변대용, 김태인, 한주용, 박순민, 김정민, 김성진, 허경준, 이경, 박성주, 유경혜 등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13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친근하고도 신비한 아세안의 동물들

일 시 | 4월 30일(금)-8월 1일(일)  
아세안문화원 기획전시실  
문 의 | 아세안문화원 77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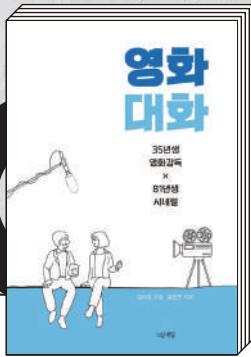
###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이상수 초대전 In My childhood Memory

일 시 | 6월 22일(화)-7월 7일(수)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미술이 가진 순수함의 근원을 아프리카 원시미술에서 찾으려 했던 피카소처럼 미술의 순수함을 어린이들의 그림에서 찾으려 한 작가 이상수 초대전.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주말 휴관)



**영화대화 :  
35년생 영화감독  
x 81년생 시네필**

김사겸 구술, 김도연 지음 / 잎새달  
232p / 1만 7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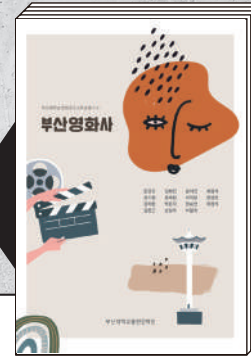
6·25 전쟁 때는 어떻게 영화를 보았을까?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코로나 시대 이후의 영화는 어떻게 될까?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이다. 1935년생인 김사겸 감독은 한국영화의 발전기에 평론계와 제작현장, 영화제까지 두루 거친 영화인으로, 부산을 영화도시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영화감독 박남옥, 영화 <바보들의 행진>(1975년)을 연출한 하길중 감독 등 한국영화사의 주요 인물들을 직접 만난 생생한 경험담, 일제강점기와 6·25 전후에 연쇄극(連鎖劇)과 무성영화를 보던 풍경, 1960~70년대 연간 200여 편의 한국영화가 만들어지던 양산시대의 영화제작현장, 부산영화평론가협회와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상을 두루 담았다. 책을 읽다보면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이사장의 추천사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부산에서는 최초로 역사를 만든 이와 그것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후배의 열정이 만나서 부산과 한국의 영화를 다시 읽는 것이다. 당장 이들의 대화 사이에 끼여들고 싶어진다.”



**옛 그림으로 본 제주**

최열 지음 / 혜화1117  
480p / 3만 8천 5백 원

미술사학자 최열은 약 20여 년 전 제주 화가 김남길의 그림 <탐라순력도>를 처음 만났다. 18세기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의 순력길에 동행한 김남길이 남긴 41폭의 그림이다. 조선 실경 및 문인화에 익숙한 최열은 이 그림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에 매료됐다. 언젠가 이 그림들에 관한 글을 써보겠다고 다짐했던 미술사학자의 눈앞에 제주를 그린 수많은 그림들이 연달아 등장했다. 그때마다 그는 제주를 그린 그림들이 펼쳐내는, 육지와 다른 예술 세계를 깊이 탐닉했다. 제주 화가들은 제주의 명승을 ‘십경’ 또는 ‘십이경’으로 꼽아 그리기를 즐겼고, 다양한 그림도 전해진다. 하지만 변방이었던 제주의 그림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최열은 조선의 실경 연구에 집중해 온 지난 20여 년 동안 제주 지역 그림을 함께 살폈고, 오랜 공부의 결과를 모아 이 책을 펴냈다. 조선시대 제주 출신 예술가들이 그린 제주 그림을 비롯해 135점의 그림과 그림지도를 망라했다. 제주의 풍경을 담은 사진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은 제주의 옛 그림에 또 다른 매력을 느낄 것이다. 우뚝 솟은 한라산을 녹색으로 칠한 지도, 성산일출봉, 정방폭포, 산방굴 등 제주 풍경을 그대로 담아낸 화폭들이 옛 제주를 상상하게 한다.



**부산영화사**

문관규 외 지음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463p / 1만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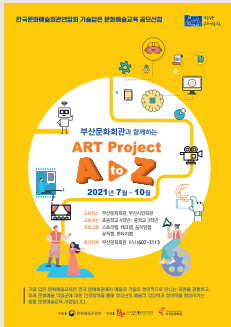
부산대 영화연구소가 개항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산 영화산업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책을 펴냈다. 한국에서 영화산업이 태동한 192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부산영화 역사를 정리한 첫 책이다. 이 책은 부산이 한국영화사에 있어 유서 깊은 장소이자 한국영화 역사 발전의 거점도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극장 ‘행좌’도 부산 중구 남포동 2가 14번지 옛 향촌다방 부지에 있었다. ‘행좌’의 1910년 경 모습의 사진자료도 책에 실렸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부산에 거주하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영화 관람열기는 대단했다. 1920년대 부산은 서울과 양립하는 영화 개봉도시로, 영화산업 태동기부터 부산은 ‘영화 도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책에는 부산 첫 영화제작사, 첫 극장, 첫 소극장 개설부터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의 출범, 부산 영화 배급 역사, 시대별 부산영화에 나타나는 부산에 대한 고찰 등이 실렸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과 영화의 인연이 오래전에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지역 영화사만을 따로 떼 연구 집필한 사례가 파리 등 영화산업이 발달한 해외 도시에서는 흔하지만 국내에는 없었는데, 그 시작이 이 책이다.



**(재)부산문화회관 ‘Art Project A to Z’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

- 2021년 7월 20일~10월 16일 총 3기 모집 -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051-607-3113)



(재)부산문화회관이 2021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에 교육프로그램인 ‘Art Project A to Z’가 선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 부산 지역 청소년들에게 예술과 기술 융합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전국문화회관에서 예술과 기술이 창의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경험하고, 미래 문화예술 직업군에 대한 진로탐색을 통해 청소년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키고자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사업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이 이번에 선보이는 ‘Art Project A to Z’는 참여자간의 소통을 위한 ‘스토리랩’, 미디어 제작활동인 ‘테크랩’, 신체를 통한 표현활동인 ‘움직임랩’, 효과음 제작을 위한 ‘뮤직랩’, 전과정 통합의 인터랙티브 공연인 ‘판타지랩’(스토리랩→테크랩→움직임랩→뮤직랩→판타지랩 순으로 진행)을 단계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예술과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참여자, 기술자-예술자, 전문가-비전문가와 소통이라는

주제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연문화를 구현해 낼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특별한 상황과 경험들을 마주하게 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과 기술과학을 융합하고 활용하는 능력, 신체를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감정조절 능력, 낯선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 다양한 능력들을 배양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Art Project A to Z’은 4월부터 7월까지 연구, 개발을 거쳐, 7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3기수에 걸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진행된다. 1기와 3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2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집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접수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진행된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고 70,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 2021년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4건 73,796천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임응식 작품展 <부산에서 서울로>’ 33,000천원 등을 지원받는 등 올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부산시민들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진행 모습





교육전시팀  
*Educational Exhibition*

## 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윤지예 (재)부산문화회관 교육전시팀 주임

### 역사 1 : 온라인 클래스의 시작,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2020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마주했다. 공연장이 휴관에 돌입하고, 난생 처음 재택근무를 할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비대면'과 '백신'이라는 핫한 키워드 아래 살고 있다. 비대면 사업인 온라인아카데미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 새로운 분야였고, 선례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경험치를 갖고 있지 않은, 모험과 용기가 필요한 사업이었기에 담당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자진해서 맡았다. '눈치보기' 혹은 '뭉개기식'의 태도는 사절이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보다는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를 당당히 선택한 셈이다. 평소 기계치, 컴맹이라는 소리를 들던 내가 줌(ZOOM), Google Meet, Webex Meet, Teems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섭렵하고, 타 기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유·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면밀한 사례조사를 시행한 결과 2021년 4월 온라인 아카데미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었다. 어느새 정신차려보니 직원들이 나를 '윤 PD'라고 부르고 있었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다. 콘텐츠 기획에서부터 시나리오 작성, 영상 연출, 편집 등 새로운 기술 영역의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

다. 지금도 시작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의 후회스러움과 두려움이 마구 교차하던 감정이 떠오른다. 하지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는 말처럼 새로운 시도에 대해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전진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였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기획자가 되자!

### 역사 2 :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행복한 하루

재단법인 전환 이후 부산문화회관의 가장 큰 성과이자 변화된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최고위상을 확립한 문화예술 아카데미와 기획전시 개최를 꼽을 것이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 겨우 3명이 한 팀이었고 교육실이라곤 국제회의실 하나가 고작이었다. 그랬던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어느새 국내 어느 복합 문화공간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수준 높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 의뢰를 받을 정도로 성장했다. 정말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카데미 시작 당시 주 타겟 대상층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니즈 분석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열심히 해왔기에 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순간도 우리가 정했던 아카데미의 추진방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믿는다. 물론 힘든 순간들도 많았다.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팀



에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때, 그리고 아카데미의 차별성 확립을 위한 끊임없는 기획력이 요구될 때가 그러했다. 누군가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아카데미도 외부 용역을 맡아라고도 했다. 그랬다면 우리 부서가 이만큼 성장이 가능했을까? 나의 동료는 무언가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졌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전혀 아니다. 결론은 쉽게 일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고생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얻은 것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팀은 우수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흔히 팀제로 운영되는 조직을 얘기할 때 축구팀에 비유한다.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듯이 축구선수 11명이 모두 골을 넣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자가 팀의 승리를 위해 자기 몫을 할 때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다. 매순간 열심히 보다는 잘하는 사람이 되자! 나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문화예술교육의 놀라운 힘을 믿는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스스로 되묻는다. '좋은 기획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좋은 기획자가 되기 위해 어떤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나는 기획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기심, 그리고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자세, 실행력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획일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보고 꼬집어보는 자세를 통해 시민이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힘을 느낀 사례가 있다. 교육전시팀은 <수강생 뽐내기>라는 행사를 통해 수강생 전시회를 개최한다. 그중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강좌에서도 작품을 전시했다. 전시실을 둘러보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과 찌릿찌릿한 전율이 느껴졌다. 전시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그림 좋네요.'라고 단순히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강좌가 개설된 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모습이 스쳐지나갔고 그 속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림 속에는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었고 예술을 체득하면서 예술의 본질적 가치인 위안, 자기치유,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앞으로도 일상에 스며든 행복한 문화예술교육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 역사 3 : 전시를 통해 떠나는 생생한 파리 여행

부산문화회관에서 전시를 기획할 때는 당연히 미술관과의 전시 콘텐츠 차별성을 두고 심도 깊은 고민이 시작된다. 기획과 함께 동반되는 고려사항은 당연히 전시시설이다. 미술작품들은 습

도나 온도, 그리고 반입과 반출시 작품파손 우려가 커서 원활한 환경아래 윈스톱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공연과 달리 장기간 운영되기에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며, 작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 또한 기획업무 영역이다. 우리팀은 기획력을 피할 수 없는 부서다. 다가오는 6월, 개막 예정인 기획전시 <매그넘 인 파리> 사진전은 세계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진가 그룹 매그넘 포토스의 시선으로 포착한 파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 개막은 6월이지만 우리는 전시 유치에서부터 개막하기까지 약 1년간의 준비시간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전시가 가진 의미나 가치, 교육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본격적인 유치를 위한 협의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순수한 학예기능과 예술행정, 그리고 경영마인드가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래랑 빛이랑>, <가루야 가루야>와 같은 체험전을 통해 가족단위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으며 <라이프 사진전>, <인상파 미디어전>,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등과 같은 역사적 기념전시에서부터 대흥행 전시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전시를 기획해왔다. 앞으로 나는 공연과 연계한 전시 혹은 국제 교류전시도 추진하고 싶다!

###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수강생들이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배움에 진지한 모습들을 보면 뿌듯함과 동시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 그동안 교육전시팀에서 근무하면서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재밌게 열심히 일했다. 향후 나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공연·전시을 통해 감동을 느끼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일상 속 예술을 실현하고,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진정한 기획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사진 배준익>

**교육전시팀 윤지예** 1988년 부산문화회관이 처음 개관되었을 때 저도 태어났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덧 직장생활 1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회관에 근무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문화예술이 가진 긍정과 치유의 놀라운 힘을 믿습니다.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1-22

2021-22 BSCC  
SEASON PROGRA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1-22 시즌 프로그램

b s c c  
s e a s o n  
p r o g r a m

부산을 품다 \_ 세상을 잇다 \_ 예술로 함께 하다



## (재)부산문화회관 2021-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연극/뮤지컬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 War Horse>**

문화 | 중극장 4.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세익스피어 고전에 대한 한국적 재해석  
**낭만희극 <심이야>**

시민 | 소극장 9.17.(금)~9.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전설의 리틀농구단**

문화 | 중극장 10.9.(토) 15:00pm, 19:00pm

R 60,000원 S 50,000원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시민 | 소극장 10.23.(토)~10.24.(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리어왕 King Lear>**

문화 | 중극장 10.23.(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문화 | 중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스승의 삶을 흠친 제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시민 | 소극장 12.17.(금)~12.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 무용/발레

2021 BSS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운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문화 | 대극장 9.3.(금)~9.5.(일)

금 8:00pm 토-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2021 BSS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문화 | 중극장 11.26.(금)~11.27.(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한국 발레 대표 국립발레단의 12월 선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12.1.(수)~12.2.(목) 7:3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 음악/클래식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클**

문화 | 대극장 3.6.(토) 5:00pm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B 30,000원



빈 필과 베를린 필의 매력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취소]**

문화 | 대극장 6.22.(화) 7:3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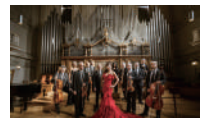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I Musici)**

문화 | 대극장 12.18.(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 2021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31.(금) 10: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 오페라

###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5.1.(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 브리젠츠 오페라 페스티벌 <리골레토>

문화 | 중극장 6.12.(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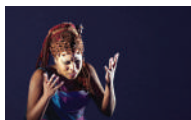


###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I 라 스칼라 <아이다>

문화 | 중극장 9.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I

#### <피가로의 결혼>

문화 | 대극장 10.22.(금)~10.23.(토)

금 7:30pm 토 5: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 마린스키극장 오페라단 내한 공연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 공>

시민 | 대극장 11.10.(수) 7:30pm

V 9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V 베를린국립오페라 <맥베스>

문화 | 중극장 1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 국악

### 전국팔도 핫한 탈꾼들의 제대로 보여주는 탈춤판 천하제일탈공작소 <가장무도>

문화 | 중극장 4.3.(토) 5: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압도적인 감흥,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음악 <잠비나이 부산 콘서트>

시민 | 소극장 4.30.(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 다원예술

### 브로드웨이를 매료시킨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SNAP>

문화 | 중극장 5.20.(목)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 콘서트

###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 | 대극장 5.28.(금)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 20,000원

※ 패키지 제외



###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샘머 나이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1.(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8.(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 패키지 제외



## BSCC 인문학\* 콘서트 : 향연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행복의 조건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문화 | 중극장 3.26.(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어디서 살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건축가 유현준**

문화 | 중극장 4.30.(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진정성의 시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문화 | 중극장 5.28.(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미술사학자 유홍준**

문화 | 중극장 7.30.(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영원한 광대 김명곤의 풍류정담(風流情談)  
**공연예술인 김명곤**

문화 | 중극장 9.24.(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뇌과학에 묻다, 예술의 미래는?  
**뇌과학자 김대식**

문화 | 중극장 10.29.(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 가족·어린이·청소년

공연장 예술진로교육 프로그램  
**스쿨 온 스테이지 School on Stage**

문화 | 중극장 5.26.(수) 11.17.(수)  
10:00am 2:00pm  
All Seats 10,000원



온가족과 함께하는 판타스틱 모험의 세계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시민 | 대극장 6.19.(토)~6.20.(일)  
토 11:00am 2:00pm 4:30pm  
일 11:00am 2:00pm  
R 66,000원 S 55,000원 A 44,000원  
※ 패키지 제외



백희나 작가의 원작을 넘어선 감동  
**뮤지컬 <알사탕>**

문화 | 중극장 7.10.(토)~7.11.(일)  
7.16.(금)~7.18.(일) 금 4:00pm  
토일 11:00am 2:00pm 4:00pm  
All Seats 50,000원(동등이석)  
※ 패키지 제외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문화 | 중극장 9.9.(목)~9.10.(금)  
목 7:30pm 금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재)부산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시민 | 소극장 4.28.(수), 5.26.(수), 6.30.(수),  
7.28.(수), 9.29.(수), 10.27.(수) 11.24.(수),  
12.29.(수) 7:30pm  
All Seats Free



### 지역프로젝트

부산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2021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무대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12:20pm  
All Seats Free



비대면 시대, 온라인으로 즐기는 배시시한 콘텐츠  
**2021 배시시 프로덕션 온택트**

배시시(BSCC)TV 2021년 상반기  
BSCC 온라인 플랫폼 Free Streaming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문화 | 시민 8.13.(금)~8.24.(화)  
평일 7:30pm, 주말-공휴일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실내악의 향연, 음악의 온기를 전하다  
**2022 (재)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챔버홀 2022.1.18.(화)~1.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부산시립교향악단\_정기연주회

#### 제57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신년음악회

**문화 | 시민** 1.14.(목)~1.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이경숙&김규연



#### 제572회 정기연주회 선후배

**문화 | 중극장** 3.1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첼로 정재윤 | 바이올린 김덕우



#### 제573회 정기연주회 슈트라우스 어게인!

**시민 | 대극장** 4.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임윤찬 |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 제57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러 [하반기 연기]

**문화 | 대극장** 4.30.(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이병욱



#### 제575회 정기연주회 열정

**시민 | 대극장** 5.2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클라리넷 김한



#### 제576회 정기연주회 비제의 교향곡 제1번

**문화 | 중극장** 6.18.(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이윤수



#### 제577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문화 | 대극장** 7.1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 제578회 정기연주회 합창

**문화 | 대극장** 9.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박은주 |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중 | 베이스 장세종 |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시민 | 대극장** 10.14.(목)~10.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조진주



#### 제58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문화 | 대극장** 1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홍민수



#### 제581회 정기연주회 모차이즘

**문화 | 대극장** 11.2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피아노 김대진



####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문화 | 중극장** 12.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최희연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 부산시립교향악단\_기획연주회

####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1.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 제76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시민 | 대극장** 2.18.(목) 7:30pm  
All Seats 5,000원



####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3.10.(수)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I**  
시민 | 대극장 3.30.(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  
문화 | 챔버홀 4.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V**  
시민 | 대극장 5.25.(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I**  
문화 | 챔버홀 7.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문화 | 대극장 8.10.(화) 3:30pm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  
문화 | 중극장 8.27.(금) 9:00pm  
All Seats 10,000원



제77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9.30.(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  
시민 | 대극장 10.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II**  
문화 | 챔버홀 10.21.(목)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11.(목)~11.12.(금) 11:00a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12.3.(금) 9: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I**  
문화 | 중극장 12.14.(화) 7:30pm  
All Seats 5,000원



### 부산시립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81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  
문화 | 대극장 5.13.(목)~5.14.(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시놉시스, 작곡 이진실 | 지휘 이기선



제182회 정기연주회 / 대규모 합창음악회  
**위로의 메세지**  
문화 | 대극장 6.24.(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바리톤 고성현 |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의 밤 III**  
문화 | 대극장 10.7.(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제184회 정기연주회  
**정적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시민 | 대극장 12.9.(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반주 카메라타안티카(고음악 전문 연주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강혜정 | 알토 양송미 | 테너 조성환 | 베이스 박흥우



### 부산시립합창단\_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1  
**새봄을 꿈꾸며**  
문화 | 대극장 3.4.(목)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상길



가요합창음악회  
**2021 Summer Fantasy '시간(時間)'**

문화 | 대극장 7.22.(목) 8:0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10.25.(월)~10.28.(목) 6:00pm  
All Seats Free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외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2  
**Healing for you**

문화 | 대극장 11.9.(화)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수은



**부산시립무용단\_정기공연**

제83회 정기공연  
**한국춤 명품 컬렉션 '본색'**

문화 | 대극장 5.27.(목)~5.28.(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제84회 정기공연  
**출극 '동백, 부부'**

문화 | 대극장 11.18.(목)~11.19.(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정기연주회**

제209회 정기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대극장 3.1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문화 | 중극장 6.10.(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집박 김수일



제211회 정기연주회  
**국악칸타타**

문화 | 대극장 9.8.(수)~9.9.(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 작곡 김은혜 | 작시 이청산



제212회 정기연주회  
**명인·명창·명기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1.(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판소리 박성희, 정선희 | 태평소 김경수 | 가야금 송영남, 하지희  
※ 대통령상 수상자 무대



제213회 정기연주회  
**2021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8.(화)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특별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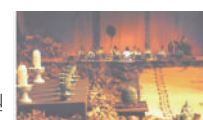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4.22.(목)~4.23.(금)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해금 서은영, 안은경, 김준희, 윤해승(22일)  
가야금 광수은, 오해향, 윤경선, 최미란(23일)



**신축다례연(辛丑茶禮宴)**

문화 | 대극장 5.7.(금) 7:30pm  
1층 20,000원 2층 10,000원  
지휘 김정수 | 행다시연 (사)한국차인연합회 부산지원  
처용무 부산시립무용단 | 시조 이아미



스타 프로젝트  
**두개의 바람 二風異流**

문화 | 중극장 7.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11.(수)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노래 박성희 | 태평소 김상연 | 가야금 김혜진



제4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11.24.(수) 7:30pm



**부산시립극단\_정기공연**

제69회 정기공연  
**a point of CONTACT**

문화 | 중극장 4.9.(금)~4.11.(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20,000원 S 5,000원  
작·연출 김지용





제70회 정기공연  
**벚꽃 동산**

문화 | 중극장 7.1.(목)~7.3.(토)  
 평일 7:30pm 토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 객원연출 강성우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찰스 디킨즈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12.23.(목)~12.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찰스 디킨즈 | 각색/작사/연출 김지용  
 지휘 이기선 |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출연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극단\_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8월 중(시간, 장소 미정)  
 원작 제임스 매튜 베리 | 대본, 작사 강보람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안데르센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9.28.(화)~10.23.(토) 11:00am  
 (일요일 공연 없음) ※ 평일 단체, 토요일 일반  
 All Seats 10,000원  
 원작 안데르센 |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64회 정기연주회  
**화려한 전성기, CLIMAX**

문화 | 대극장 3.19.(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 협연 피아윤



제65회 정기연주회  
**노련함, VETERAN**

문화 | 대극장 9.24.(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제66회 정기연주회 및 2021년 송년음악회  
**겨울...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12.2.(목)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특별연주회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중극장 5.21.(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2021 렉처콘서트

문화 | 대극장 8.12.(목)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청소년 실내악의 밤

문화 | 챔버홀 10.23.(토)~10.24.(일)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58회 정기연주회  
**제비던**

문화 | 대극장 5.29.(토) 7: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59회 정기연주회  
**양탄자타고 음악여행 II**

문화 | 대극장 9.11.(토)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60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Unplug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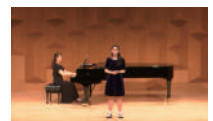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12.17.(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특별연주회

향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2.19.(금)~2.20.(토)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ackage Ticket

2021-22  
BSCC

## 프리미엄 패키지(40%) [판매종료]

■ V+R 320,000 192,000 R 300,000 180,000 S 210,000 126,000

- 프리미엄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프리미엄 2.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 프리미엄 3.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프리미엄 4.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프리미엄 5.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 연극/뮤지컬 패키지(30%) [판매종료]

■ R 170,000 119,000 S 120,000 84,000 A 80,000 56,000

- 연극/뮤지컬 1.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 연극/뮤지컬 2. 연극 <흑백다방>
- 연극/뮤지컬 3.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연극/뮤지컬 4. 연극 <단편소설집>

## 발레/무용 패키지(30%) [판매종료]

■ V+R 240,000 168,000 R 200,000 140,000 S 120,000 84,000

- 발레/무용 1. 에이프만 발레<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안나 카레리나> (작품 중 택 1)
- 발레/무용 2.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 발레/무용 3. 이정윤 안무신작 <MOTI/어디로부터>
- 발레/무용 4.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 클래식/오페라 패키지(30%) [판매종료]

■ V+R 310,000 217,000 R 260,000 182,000 S 190,000 133,000

- 클래식/오페라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클래식/오페라 2. 프레데리크 기 피아노 리사이틀
- 클래식/오페라 3.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 클래식/오페라 4.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 NT Live 패키지 [판매종료]

■ 40,000 28,000

- NT Live 1. 워 호스 War Horse
- NT Live 2. 리어왕 King Lear

## <인문학+ 콘서트> 패키지

- 인문학+ 콘서트 6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판매종료]
- 인문학+ 콘서트 4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인문학+ 콘서트 2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Season Program

## <시네 오페라 초이스> 패키지

- '시네 오페라 초이스'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판매종료]
- '시네 오페라 초이스'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시네 오페라 초이스' 2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자유 패키지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 NT-Live, 인문학\* 콘서트, 시네 오페라 초이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신비아파트 시즌4, 알사탕, 피카로의 결혼, 조수미&이무지치, 2021 제야음악회 공연은 패키지에서 제외
- \* 자유 패키지는 동일 등급에 한해 구입 가능

## 패키지리켓 오픈: 2021. 1. 19.(화) 오후 2시

###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예매: www.bscc.or.kr
  - 고객센터 전화예매: 051-607-6000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는 묶음구성이므로, 공연별 편당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구성공연의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 취소만 가능합니다.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 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 중 일부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연은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해 환불됩니다.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될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

### 부산문화회관



지하철 2호선 대연동역 하차,  
5번 출구로에서 유인 교차로 방향으로  
도보 10분



• 시내버스 51번, 68번, 134번, 138번  
• 마을버스 남구9번, 남구10번



셔틀버스

• 저녁시간  
공연 시간 1시간 전 / 30분 전 2회 운행  
(※ 공연 시작시간에 따라 운행시간 변경)  
• 낮시간  
모든 공연 시작 30분 전 1회 운행

### 부산시민회관



1호선 범일역 하차, 2번 출구(도보 10분 소요)  
2호선 문현역 하차, 3번 출구(도보 3분 소요)



• 시내버스 2번, 68번, 11번, 80번, 99번, 83-1번, 63번, 57번, 138번, 23번, 83번, 10번, 108번, 81번, 43번, 52번, 5-1번, 22번, 40번, 134번, 27번, 26번, 41번, 82번, 101번, 42번, 1583번, 24번  
• 마을버스 남구3번, 남구5번  
• 좌석버스 1000번, 1003번, 1004번

##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 ▪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

ARS ① 한국어 문의

ARS ② 외국어 문의

#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00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선 예매 서비스제공(일부공연 제외)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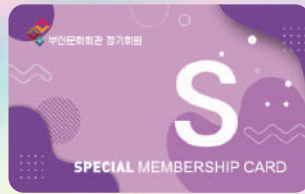
VIP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마감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MEMBER

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 무용단 | 극단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이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1년부터 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 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TEL. 051)607-6000 FAX. 051)607-611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1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 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3월 6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War Horse)>, <리어왕 (King Lear)>**  
4월 24일(토), 10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20매)

뉴에이지의 거장, 피아노의 음유시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프레데리크 기(Frédéric Guy) 리사이틀**  
6월 1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취소**

빈필과 베를린필의 매력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6월 22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취소**

은반 위에 펼쳐지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가 인형**  
7월 31일(토) 오후 2:00, 5:00, 8월 1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취소**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썸머 나이트 콘서트**  
8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8월 28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8월 13일(금)~8월 24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회당 R석 20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

### 이정윤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9월 3일(금) 오후 7:30, 4일(토)~5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9월 9일(목) 오후 7:30, 10일(금)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셰익스피어 고전에 대한 한국적 재해석

### 낭만희극 <십이야>

9월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꿈꾸는 청춘들의 치열한 농구 한판

### 창작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10월 9일(토) 오후 3:00,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오후 3:00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 흑백다방

10월 23일(토)~10월 24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11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11월 26일(금) 오후 7:30,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스승의 삶을 훔친 제자의 딜레마

### 단편소설집

12월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 조수미 & 이 무지치

12월 1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10매)

- \* 1인 1~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입국상 어려움으로 해외초청공연이 부득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영옥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 문민우

### 박성복

###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임은자

###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 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김홍재(010-3560-2511)

# 부산문화회관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 EVENT



컬러를 컬러 **플** 하게  
문화를 파워 **러스** 하게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 가입기간

2021년 3월 2일(화) ~ 6월 30일(수)

##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 당첨자 발표

2021년 7월 중, 당첨자 개별공지

##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 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 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 원 상당)
선물4	100명	베스킨라빈스교환권(2만 원/모바일)
선물5	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모바일)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 SMS/이메일 수신 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 동의는 필수입니다.

### 정보제공 활용 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뿐만 사용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 플러스 회원 가입 신청서



QR코드로 간편가입

이름

아이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메일

주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이 발송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제작

# MOTI/어디로부터 무용수 오디션 공고

(재)부산문화회관이 기획·제작하는 <MOTI/어디로부터> 무용 공연을 위한 무용수 오디션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공연개요

- 가. 공연명 : MOTI/어디로부터
- 나. 공연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다. 공연일정 : 2021년 9월 3일(금) ~ 9월 5일(일) / 총 3회
- 라. 연습일정 : 2021년 7월 첫 주 시작 예정
- 마. 연출/안무 : 이정윤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 바. 응시자격 : 만 19세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거주자 및 3년 이상 거주했던 자, 또는 부산, 울산, 경상남도 소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지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5월 14일(금)-6월 6일(일) 오후 6:00까지
- 나. 접수방법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영상파일과 함께 이메일(sbpark88@bscc.or.kr) 제출
  - ※ 지원서 메일 제목은 '무용수오디션지원서\_본인이름\_성별' (ex 무용수오디션지원서\_홍길동\_남)로 작성
  -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첨부
  -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집전형 및 일정

### 가. 모집전형

파트	전형 과목
1차 오디션	• 신청서 서류 및 3분 이내의 본인이 촬영한 영상 심사 • 영상 내용 - 자기소개 1분 이내 (자기소개, 나이, 학교, 전공, 현재 활동, 움직임에 대한 설명) -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움직임 표현 영상 2분 이내 (자유롭게)
2차 오디션	• 단체 워크숍 및 개별 면접으로 진행 • 세부사항은 1차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 나. 모집일정

- 1차 오디션 : 6월 9일(수) ※ 6월 11일(금) 결과발표(합격자 개별연락)
- 2차 오디션 : 6월 18일(금) 오전 10:00 부산문화회관 다듬채 1층
- ※ 세부사항은 합격자 개별 안내
- ※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 ☎ 051-607-6053

삶에 플러스가 되는 인문학

# BSCC 인문학+콘서트

# 향연

21.3.26(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행복의 조건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21.4.30(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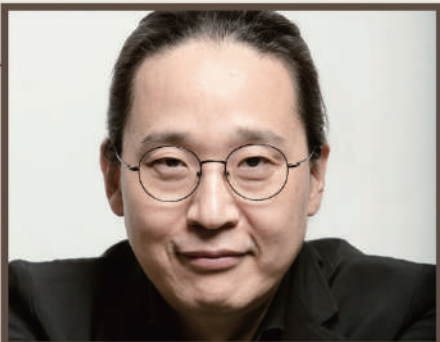
어디서 살 것인가?



건축가 유현준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가

21.5.28(금)

진정성의 시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21.9.24(금)

영원한 광대 김명곤의 풍류정담



공연예술인 김명곤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21.7.30(금)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미술사학자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21.10.29(금)

뇌과학에 묻다, 예술의 미래는?



뇌과학자 김대식  
KAIST 교수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오전 11:00

전석 20,000원

연주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및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http://www.bscc.or.kr)  
고객지원센터 Tel. 051-607-6000

패키지 할인

6편 동시 구매 40% 할인

4편 이상 동시 구매 30% 할인

2편 이상 동시 구매 20% 할인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 배시시 명품극장

예술의전당 공연실황을 시민회관에서!

2021. 4. 28. ~ 12. 29.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9:00** (총 8회 진행)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주최, 주관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 | 예술의 전당 SAC on Screen

전석무료(지정좌석제) 관람신청 | 부산시민회관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 051. 607. 6000(ARS 1번)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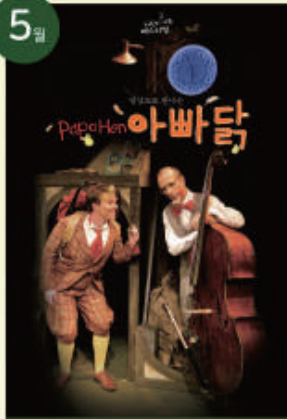


**늙은 부부 이야기**

2021. 4. 28. (수)

연극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5월



**아빠닭**

2021. 5. 26. (수)

연극 | 36개월 이상 관람가

6월



**피노키오**

2021. 6. 30. (수)

연극 | 5세 이상 관람가

7월



**마술피리**

2021. 7. 28. (수)

오페라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9월



**스윙**

2021. 9. 29. (수)

현대무용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10월



**정크, 클라운**

2021. 10. 27. (수)

년버벌 | 5세 이상 관람가

11월



**춘향탈옥**

2021. 11. 24. (수)

오페라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12월



**웃는 남자**

2021. 12. 29. (수)

뮤지컬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제576회 정기연주회

# BIZET'S FIRST SYMPHONY

비제의 교향곡 제1번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2021. 6. 18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Busan Cultural Center

생상스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Saint-Saëns • Piano Concerto No.2 in G minor, Op.22

비제 • 교향곡 제1번  
Bizet • Symphony No.1 in C major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이민형 Min Hyung Lee, conductor

피아노 이윤수 Yoon-Soo Rhee, piano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제577회 정기연주회

# FRENCH NUANCE

프랑스식 뉘앙스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2021. 7. 16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Cultural Center

드뷔시 • 목신의 오후 전주곡  
Debussy •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L.86

라벨 •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  
Ravel •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M.61

라벨 • 바다 위의 작은 배  
Ravel • Une barque sur l'ocean

드뷔시 • 「바다」  
Debussy • "La mer", Trois Esquisses Symphoniques, L.109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Adrien Perruchon, conductor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Busan Cultural Center

#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선불카드  
(\$100 이상 구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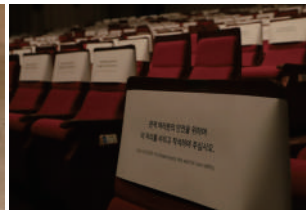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 이용수칙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공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시 공연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개인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 티켓을 직접 절취하신 후 티켓의 왼쪽 부분(또는 작은 쪽 부분)을 수표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객석'에 맞게 지정된 좌석에 착석바랍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1. 6.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⑪ 070-755-2188
- ② 624-9776    ⑫ 611-3973
- ③ 626-7111    ⑬ 908-1111
- ④ 611-4241    ⑭ 625-9402
- ⑤ 626-4448    ⑮ 626-2292
- ⑥ 622-7412    ⑯ 010-3996-6498
- ⑦ 611-3589    ⑰ 623-0772
- ⑧ 628-8009    ⑱ 628-3832
- ⑨ 621-7040    ⑲ 714-3559
- ⑩ 621-5788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펀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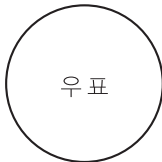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주소 .....



받는 사람

이름 .....

주소 .....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1

6

JUNE







# Anton Chekhov

부산시립극단 제70회 정기공연

## 벚꽃동산

*Вишнёвый сад*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051-607-6000 ARS 1번  
티켓 R석 2만원 S석 1만원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관람가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예술감독 김지용 연출 강성우

2021. 7. 1 목 — 7. 3 토  
평일 19:30 토요일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